

75호, 2008.5

여는 시 / 내몰이 휘몰이 장단 / 이기형

사람 / 군부독재를 넘어선 어머니의 분노와 용기-오월어머니회 안성례 어머니 / 정동석, 오미정

시론 / 광우병 세고기, 한미 FTA, 침략적 한미동맹 / 유영재

현장 / 글로벌네트워크 국제회의 참가기 및 교표 간담회 - 미 전략사령부,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평화협정 실현운동 / 홍근수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서울대학교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을 운영하는 김동운 회원을 만나 / 조승현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에서 창립한 군산평통사에 기대가 큼니다 / 김판태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금강산의 소나무... 그리고 통일 / 양다솜

해외평화운동 / 재 재정의를 향하는 일미동맹 / 도요타 유키하루

기고 / 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 갈 수 있다 / 은정복

| 여는 시 |

내몰이 휘몰이 장단

민족시인 이 기 형
아가야 슬피 울질 말아라
그렇잖아도 외인군졸이 설치
애간장이 찢어지는 우리들을
더 슬프게 하는구나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후손이다
예의 겸양 의리 도덕 화평의 미덕을 온 몸에 절절 지닌 흰옷 겨레
군졸들아 물어보자
그대들은 이런 미덕이 있냐 없냐
남의 나라 안방을 60여년간 차지하고
턱지거리로 좌지우지 했고
북쪽 혈육을 목조여 죽이는 전쟁연습에만 매달려
밤을 지냈다
이땅을 강점해 살면서도
저희 생활비를 대라
금수강산 옥토를 오염시켜 놓고도
그 청정 비용을 내라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 뭉개 죽이고도
눈썹 한가닥 까딱 안 해
제 못쓸 장비는 제 값으로 받아 먹어
대추리에 중국을 칠 침략기지를 꾸리느라 우리 아들딸을 부려먹어
세상 천지 인피 수심(人皮獸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웃 어른들 덜덜 잡혀
그저 예예 굶신굶신이다

봄 동산에 진달래가 피고
가을 설악에 단풍이 질고
오동추야에 달이 밝아도 가신 님은
돌아온 들녘에 봄은 오질 않아
한숨과 눈물만 얼룩져
어화 청춘 벗님네야
4천만 손각지 끼고 통일로, 전국 국도를 짝 메워
한반도 평화협정 맺기 태산도 떠나갈 듯

외인군졸 내몰이, 곳거리 장단을 울린다
한라산 지라산 산신령의 목소리
온갖 잡귀 악귀는 싹다 물러가라
내몰이 발길, 휘몰이 장단은
원한의 삼팔선을 걷어찬다
마지막 군졸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2008.5.2 서울 상서로운 풀골에서)

| 사람 |

군부독재를 넘어선
어머니의 분노와 용기
5월어머니회 안성례 선생님

진행 정동석/정리·사진 오미정

28년 전 광주 기독교병원에서...

1980년 5월 21일은 오늘처럼 부처탄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은 다 쉬고 우리 병원은 기독교병원이라 정상근무를 하니깐 우리병원으로 집중적으로 온 거지. 내가 간호감독이라, 막 밀려오는 환자들의 (응급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했지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우선 우리 피를 뽑아 일단은 수혈부터 시작하고 그랬어요.

환자들이 오면 청진기로 심장이 뛰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인자 가족들이 어떻게 소식 듣고 막 따라 들어와 살려달라고 그래요. 몸을 만져보면 아직 따뜻하니까 “이리 따뜻한 데 왜 죽어요”하면서 통곡해요. 아무리 몸이 따뜻해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안실로 옮기면 응급실로 옮겨달라고 통곡하고 그런게 켈로 힘들었었지.

너무나 참혹해서 의사들도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검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찢기고 발길 수가 있을까’하면서 수술하고 했어요. 피가 부족하다는게 시내에 알려지니까 수혈하러 온 사람들이 병원 입구부터 저 사거리까지 줄을 서고... 그 중에서도 어떤 이는 자기는 내출혈이야. 내장에서 피가 나와 배가 막 불러오거든. 근데 옆에는 외상을 입어서 동맥이 천정까지 솟구치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 환자 상태가 중한 것은 매한가지인데 눈에 보기에선 외상환자가 더 중한 것 같은 거야. 그 내출혈하는 환자가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부터 살려 주세요” 그러지. “아니다. 당신은 내부에서 피가 막 나오고 있는 거다. 당신도 치료해야 한다”하면 “그래도 저 형제부터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기고통보다 남부터 살렸으면 하는 그런 정신. 그게 광주항쟁의 인간적인 면이 아닌가 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먼저 살고 싶을 것인데 ‘저 사람 먼저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는 하나였다 한 생명체였다는 게 실감이 되죠. 삼 십여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5·18하면 그 현장에 서 있는 거 같아요.

영화 <화려한 휴가>

작년에 전씨 고향 합천까지 쫓아가서 영화 상영하고 그랬지. 한 삼천 명 모여서 같이 관람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실감을 하더라구. 그리 학살을 했구나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그런 사람을 일해재단, 일해공원 하면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쁜 짓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거지. ‘천년의 숲’ 원래 이름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일해공원이라니 역사의 흉악한 죄인을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기념한다니 그건 역사인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현장은 그 영화보다 훨씬 참혹했다고. 10분의 1도 안 돼. 진짜 응급실은 피바다였어. 영화는 조금 덜한 거야. (살육)현장도 도청주변만 보여줬으니까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거여. 저기 광주고 앞에서 일어났고, 기차 역전에서, 터미널 근방에서, 교도소 근방에서도 일어났으니까.

부군 명노군 교수는

당시 명 교수는 박정희 시절에 민주교육지표 사건이라고 해서 해직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10·26사태로 80년 3월 13일에 복직이 됐는데 5·18이 난거예요. 수습을 해 달라 해서 도청 본부도 가고 했죠.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가 홍남순 변호사, 명 교수, 김성용 신부 이 셋을 구속을 시킨거야. 세 사람이 학생들을 선동해서 5·18을 일으켰다고 각본을 짜내려니 누군가 지도자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명 교수는 끌려가서 죽게 맞으면서도 ‘내 지시를 받았다는 학생을 찾아 내 앞에 데려오라’고 버텼대요. 정보부 사람들이 1주일 동안 학교를 뒤졌는데도 그런 학생을 찾을 수 없어서 겨우 내란수괴 죄에서는 벗어났지만 많이 고생하고 그랬었지요.

이 분은 모든 행동이 신앙에서 와요. 이것이 정의냐 불의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 할 것이냐 아니오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분은요, 예전에 논산 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항의를 했는데, 거기 군인들이 “쏜다” 그러면서 공포를 쫓대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혼자 서 있더라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타협이란 게 없었죠. (인상을 강하게 보이려고) 수업을 가르치면서 불법부당한 전두환 정권이 물러가기 전엔 안 꺾는다고 했어요. 그 ‘민주수업’ 가지고 정보부에서 ‘수업 안 꺾을 거냐고. 너 그 수업 힘줄 잡아 빼버린다’고 온갖 악담을 했죠. 암튼, 전두환이 진짜 물러가고 난 다음에 꺾더라고요.

“분노가 힘이다” - 구속자 가족 대책위를 이끌고...

나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인내하고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남을 나쁘게 말한다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교회와 직장과 가정. 이 삼각축에서 내 인생은 맴돌고 있었는데, 80년 민중항쟁을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나라의 국군이 양민을 학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대검으로 난도질을 할 수 있는가? 그 잔인성에 아주 치가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격이 달라 지더라구. 군인이나 정보부에서 현장 확인을 오면 나도 모르게 “이것 봐라. 이게 인간으로 할 일이나”고 항변을 하게 되더라구요. 내게 있던 두려움과 소시민적인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정말 ‘분노가 힘이다’는 것을 느꼈지요. 나도 내 속에 그런 용기가 숨어 있는 줄을 몰랐어요.

5월에 잡혀간 명 교수랑 시민군들 군사재판이 그해 9월부터 열렸어요. 우리도 누가 잡혀갔는지 몰랐지요. 군사재판을 하니까 가족 1인씩을 군사재판장으로 들어오게 하더라구. 거기서 여기가 누구 동생이고, 누구 엄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재판장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눈짓으로 모이자 해서 모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5월 항쟁 구속자 가족회였다가 81년부터는 학생들이 계속 광주사태 진상규명하라고 분신자살을 하고 사방에서 데모하고 또 구속되고 하면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라 해서 유족이랑 부상자 가족까지 다 포함을 시켰죠.

81년에 명 교수가 나오고 나서도 아직 못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또 학생들이 계속 잡혀 들어가니까 이거는 끝도 없는 군부독재와의 계속적인 투쟁인거야. 그런데 그 소심하던 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가장 용기있는 엄마로 해서 사방에서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를 앞세우고

갈 정도였어요. 친정 오빠들은 형사들이 집에 찾아가면 ‘변해도 변해도 저렇게 변한 이가 없다. 그 순한 것이 저렇게 변해가지고 싹땀이 되었다’고 그랬다고 해요.

구속자 가족회 회장까지 맡게 된 것은 그랬어요. 가족들을 만나보니, 이 엄마들 가슴에 한 이 많고 좌절도 많더라고요. 소 팔고 바다에서 일해서 자식하나 잘 길러 왔더니 공산당이라며 다 잡아가, 동네에서는 경찰들이 저 가족은 공산당이라면서 유리시키고 접근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기가 막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 그거 아니 다하면서 지지해주고 이 가족들이 병이 나면 또 병원에 오라해서 주사 놔 주고 치료도 해주 면서 가족 회장이 된 거야. 그러다보니 보안대에서 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거지. 그런 데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부상자들의 처참한 모습을, 그 피를 다 싸매고 수술을 하고 했던 사 람이라서 그런지 나를 어찌지도 못한 거여. 단지 ‘살인마 전두환이 외치면서 데모하고 자꾸 그러면 직장에서 해고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 낮에는 데모를 하고 밤이면 병원에서 일하 는데 보안대 요원들이 와서 협박을 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항쟁 운동을 했어요. 그런 부상과 죽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는 죽어도 좋다. 그 많은 사 람이 죽어 갔는데, 아이들은 하느님이 살려주시겠지. 나는 죽어도 좋다”하는 각오가 딱 서 니까 밤낮으로 데모하고, 밤에 또 근무하고 그랬어요.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주 애 기를 하고 데모하고 돌아다니니까 검찰청, 경찰청, 보안대에선 이 안성례가 제일 골치아픈 거여. 그런데 워낙 내 주변에 가족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나는 또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기 때문에 나를 잡아가두지도 못하고 해직을 하자니,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 어떤 날은 공무 원인 우리 조카가 집에 왔어요. “고모 죄송한데요. 밖에 못 나가게 붙들어 놓으라고 나를 여기로 출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물으니 “고모가 나가면 내가 시말서 쓰고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러더라고.

“미국은 홍시감 빨아먹듯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쪽 빨아먹는 놈들”

광주 때 미드웨이 군함이 부산에 도착했다니 시민들이 와~ 박수치면서 좋아했어요. “거 보 라고 미 군함이 저 나쁜 군인놈들을 물리치고 광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시민들이 박 수 친 거죠.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미국은 북한이 준동할까봐 온 거였고,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요.

81년 가을에 나하고 홍남순 변호사 사모님하고 정동영 부인하고 미대사관을 갔다니까요. 미 대사 밑에 브렛 모어라는 참사를 만나가지고 홍 변호사 사모님은 “홍시감 빨아먹듯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쪽 빨아먹은 놈들이 미국놈들”이라고 막 해댔죠. 그러면서 통역하는 사람보고 “통역을 똑바로 하소, 우리가 영어는 잘 몰라도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있 지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 요. 왜 그 통역을 안하요. 우리도 그 단어를 다 아요. 빨리 통역하소”하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먼저 우리를 만나자고 한 거죠. 우리가 다니면서 미국 욕을 하고 다니 고 미국 사람들이 5·18 얘기하러 오면 미국놈들 나쁘다는 소리를 막 해댔더니 그 정보가 대사관에 들어갔는지 우리를 만나자고 한 거지.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우리 조상처럼 떠받 들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오랑캐들도 물리쳐 준 줄 알았는데 5·18을 보니까 그것이 아 닌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소리를 치고 왔지.

‘오월어머니회’는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기도 하고 힘이 없이 늙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전경들 앞에서 ‘정말로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하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자식 내놔라’ 그리고 외치면서 전경들이나 정보요원들 일말의 가슴을 찢리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엄마들이었는데... 내가 벌써 일흔한 살 먹듯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인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공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다시 필요하다 그래서 2000년 오월여성회를 만들었어요. ‘이 분들 가슴에 아직 한이 많구나. 이걸 풀어야겠구나’ 싶었던 거죠. 2005년에는 오월어머니집도 만들고요.

젊은 애들은 나중에라도 회유를 당하지요. 즈그 이익을 위해서 높은 자리 주겠다 그러면 입다물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맺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정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 있을 때 이 분들을 격려하면서 어머니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거죠. 내가 청년들에게도 호소했어요. “느그 생각해봐라.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했나. 그 80년 5월 이후에는 검거 선봉이 불어가지고 아주 숨도 못 쉬는 공포 속에 광주 어머니들은 살아온 거다.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전두환이 살인마다 이놈 물러가라 내 자식 살려내라 내 자식 석방해라 했다.” 그 엄혹한 공간을 매우면서 외친 것은 어머니들의 용기였던 말이에요. 다 잡혀 들어가거나 두들기고 고문받고 죽어가니까 전부 다 숨어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외치고 다녔으니까. 기동대들이 우리를 짐짝처럼 싣고 갖다 던지고 닭장차에다 막 던지고 그래도 도청 앞에 열명이라도 모여서 전두환이 살인마 외치고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저 어머니들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곤봉으로 두들겨 맞아서 기절하면 얼른 데려다가 물도 먹여주고 했어요. 전경들이 지랄하면 대갈뺨에 동전지갑을 던져 불고 별 짓을 다했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끊어지지 않고 민주항쟁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지, 우리 엄마들이 조용했다면 2~3년 동안 그 흐름이 끊어지고, 그러면 운동이 잘 일어났겠나.

그래서 어머니집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도청 가는 길이라 광주의 배꼽이에요. 여기가 작지만 큰 집이여. 여기서 5월의 증언들을 계속 품어내면 좋겠다 싶어. 증언만큼 강한 것이 없잖아. 여기 일을 보는 분도 녹두서점 김상윤씨 부인이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내가 여생의 할 일이 통일운동이다 생각했어. 그리고 기장 여신도회에서 평화통일 위원장도 했고. 앞으로 통일운동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어머니 통일운동단을 만들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일흔살이 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성례 어머니, 인자 나이 들어서 보기 힘들어 보이요’ 해서 ‘그래 알았다. 내 일선에 안 나서마.’ 했단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도와주기는 하되 내가 앞에 나서서 하기가 좀 그래.

나는 이제 확실히 나이는 나이더라고. 예전에 같으면 명 교수가 ‘계란에 바위치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흰 바위라도 된다. 검정 바위가 흰바위 되도록 쳐야 된다.’하면 그런가 했는데 지금은...

암튼, 홍근수 목사님하고 김영 목사님 하고 친하기도 하고, 모셔서 강연도 듣고 했는데, 또 김병균 목사님하고도 친하제. (그래서 평통사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다)

자기들만 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놈의 미군이 주둔함서 비용도 우리한테 다 내라 하고 전쟁 안할라 그래도 무기 사라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쉽게 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힘을 받아야 해.

그리고 미국 시민들한테도 영어로 계속 호소문을 보내는 거야. ‘앞으로 미국이랑 우리가 사는 길은 한미관계가 평등하게 되는 거다. 언제까지 지배구조로 갈라고 하나. 인제 그거는 정말 안 되니까 작전통제권도 반환하고 그리고 미군도 철수시키고 해야지 이렇게 느그들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이번에 소고기 협상 타결을 보더라도 이때다 싶어 억지로 아구를 찢어가지고 멕이니, 즈그들도 안 먹는 거를.

암튼, 그런 식으로 미국 국회와 미국 시민들에게도 우리 입장을 보내고, 여기서는 (미군) 나가라는 것 하고 두 가지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평통사 운동만큼 필요한 운동이 없고, 애국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진짜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온 국민들,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에서도 평화통일 교육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정말 분단되어 있고 이 속에서 미군이 긴 동안 우리나라에 점령,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외채도 많다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부터 가볍게 평화통일도 가르치고 해서 평화통일 이 실현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광우병 쇠고기, 한미FTA, 침략적 한미동맹

정책실장 유영재

1. 국민 생명권, 검역주권 포기한 쇠고기 협상

1) 굴욕적인 협상 내용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개요

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포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이 4월 25일, 연방관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30개월 미만이든 이상이든 동시에 수입이 되는 것이다.

② ‘백기투항’ 협상

2) 졸속적인 협상 과정

노무현 정부시절 농림부의 강력한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쇠고기 협상은 총선 직후인 4월 10일, 미국이 공문을 통해 다음날인 11일 고위급 기술협의를 하자고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미국의 요구를 아무 준비없이 수용하여 시작되었다. 그래서 협상은 4월 11일에 시작하여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18일에 타결되었다.

총선 직후 협상이 시작된 것은 쇠고기 협상이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직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기 위해 바치는 조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협상 경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협상은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부시를 만나기 전인 17일 자정(현지시간)께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에서 수행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협상 내용을 일일이 점검했다. 그런 직후 한국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농림부의 민동석 정책관이 4월 2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자신은 더하고 싶었다.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러나 18일에 협상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은

이번 협상의 졸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협상 결과 보고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후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의 문제점을 덮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협상 결과를 알렸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협상단이 미국을 압박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정부는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로 확정 발표된 미국 연방관보에는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소는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아도 동물사료로 사용가능하다”고 공고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 관계자들은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협상장에서 따져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 소의 월령 구분 표시, 전수검사 등에 대한 협상 결과에 대해 성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영문 협상문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할 수 없고, 월령표시는 검역증명서에서 아예 제외되며,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비용만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고한 것이다.

4) 무식하고 용감해서 더욱 위험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정부는 “전세계 97개국에 수출하고 100만 명이 넘는 재미교포와 3억 미국인이 즐겨먹는 쇠고기와 똑같은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된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 결과처럼 광우병 발생의 99.9%를 차지하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밖에 없다고 한다. 또 미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대부분이 24개월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0.1%의 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광우병 위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CNN방송조차 미국의 검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다.

특히,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증명을 이해관계자인 축산업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광우병 위험물질 통제를 사실상 축산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꼴이다. 또, 관련 기록 의무보존기간이 1년 밖에 안돼 광우병 교차오염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평균 10년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확인된 것이 2003년 12월 이므로 최소한 2013년까지는 미국의 인간광우병 위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인은 미국인과 달리 광우병 위험 부위를 포함하여 소의 거의 모든 부위를 식용으로 쓰는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은 인간 광우병 발병이 가능한 MM형 프리온 유전자형(나머지 MV형, VV형에서는 인간 광우병 발병 사례 발견되지 않음)보유자가 94.3%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인간 광우병 사망자 200여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인의 MM형 유전자 보유율 36.8%보다 거의 3배나 되는 비율이다.

5월 8일, 'MBC 100분토론'에 전화를 걸어 설득력있고 차분하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재미교포 이선영씨는 “쇠고기를 부위별로 나눠 출하한 뒤 뼈에 남은 잔고기들을 기계적으로 채취해 모으는 것을 말하는 AMR(선진회수육 : Advanced Meat Recovery)의 경우, 공정의 특성상 100% 살코기만 들어가기 힘들다”며 “미국 정부도 이 공정으로 인한 고기는 45% 이상이 버려 쳐수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있다고 인정하는 현실에서 한국은 이것까지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선영씨는 또 로이터 통신의 “미국에서는 이제 30개월 이상 연령 소의 부산물로는 개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는 보도를 소개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연령까지 수입한다니, 개 사료로조차 금지된 고기가 동포에게 가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한 30개월 이상된 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고 한다. 즉, 꼬리곰탕에 들어갈 수 있는 천추(등뼈와 꼬리뼈 사이)의 정중 천골능선, 사골곰탕에 들어갈 수 있는 경추(목뼈가 붙어있는 등뼈)의 횡돌기와 극돌기, 불살에 포함될 수 있는 3차신경절(뇌에 연결된 신경) 등이 안전물질로 둔갑해 수입이 허용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인이 많이 먹는 이런 부위들을 수입 가능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이들 부위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지를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이번 협상의 굴욕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쇠고기 협상의 무모함과 대책 없음에 벌린 입을 다물기 어렵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조기 비준 위한 한미 합작품

1)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결정의 배경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이처럼 무모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일까?

그 배경은 미국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먼저, 에드 세이퍼 미농무부장은 지난 2월 8일, 미 축산협회 연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

한미간에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한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에게서 고무적인 발언을 들었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쇠고기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미국 소 사육자 및 쇠고기기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축산육우협회’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던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귀국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폭을 확대할 것을 장담했다.

축산육우협회 홈페이지(www.beefuas.org)에 올라있는 주간 소식지(Cattlemen’s Capitol Concerns·CCC)는 2월 28일자에서 그로세타 회장이 같은 달 25일 열린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쇠고기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CCC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이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방미에 앞서 쇠고기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의 견해차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CCC는 이어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쇠고기의 월령과 유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CC는 그로세타 회장이 “저는 우리가 곧 한국과 쇠고기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사실들은 한미 당국이 이미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기로 합의했고,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작용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비준의 선결조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위생검역의 문제로서 한미FTA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2006년 8월 1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한미FTA 국회통외통위보고자료>에 보면, 위생검역 문제 또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21개 분과 중 하나로 분명히 다뤄져왔음을 알 수 있다. 위생검역 문제의 세부항목에는 ▲협의 채널 구성문제, ▲LMO 검역절차 간소화, ▲육류원산지 기준, ▲조류인플루엔자지역화조건 등과 함께 광우병관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당국자들의 발언 등의 정황을 보더라도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와 떼어 수 없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1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결요건은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이라며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에 따라 쇠고기시장을 완전 재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축산육우협회 소식지는 2월 21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 축하 취임식 축하 미국 대표단은 한·미 쇠고기 통상 이슈들을 해결하고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국 정부 관료들에게 강력히 주장할(make a strong case)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 막스 보커스 상원 재정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비과학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수입 쇠고기를 공정히 평가하는 기준을 세울 때까지 상원 재정위원회가 한·미 FTA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농림부가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역시, 미국이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려면 1년 이상이 필요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니, 이행시가 아니라 공표시점('08년 2월경)에 국제무역사무국 기준을 완전 수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10월 협상이 전면 중단된 이후 미국은 상하원에서 FTA 비준을 위한 이행법안 제출을 앞두고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이 선결조건이 됐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 역시 인수위 기간 동안 무역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가 큰 과제인데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2월에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해 이미 2월 경에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노무현 정권 때 쇠고기 협상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한미FTA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이 11월 4일에 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미 의회에서 한미FTA 심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8월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미FTA에 대해 클린턴 상원의원이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역시 한미FTA와 쇠고기 전면 개방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도 한미FTA가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의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하는 한미FTA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쇠고기 문제가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약품가격 인상 문제와 함께 한미FTA의 4대 선결과제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미양국의 쇠고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3. 한미FTA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의 한 축

2005년 11월, 한미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또 이 선언에 따라 2006년 1월 19일에 열린 한미 외무부 장관회담에서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양자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미동맹 문제를 다루는 양국 최고위 당국자들이 합의한 선언과 성명에 한미 FTA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최근의 진전’이란 한미 FTA 협상 개시 합의를 의미함)은 한미 FTA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즉,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정치·경제·문화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동맹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직후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FTA 협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한미 FTA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중남미의 5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한국에 비견할 만한(그러나 더 작은)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파나마, 모로코, 바레인 등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경제소국들이다. 이는 미국식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정치적 협정임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미 FTA가 부시 행정부가 공표했듯이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통합 FTA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한미 FTA 추진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은 한국 시장을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2004년 이래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방문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또는 한국의 친중국화를 제어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보면 2006년 1월 19일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발표와 2월 2일의 한미 FTA 협상 개시선언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한미 FTA 추진과 한미 군사동맹의 재편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각 대륙의 군사정치적 요충지에 FTA를 체결하면서 정치군사적 동맹(예속) 체제 강화와 FTA를 통한 경제 동맹(예속)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이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조용하여 구사하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호응하는 토대를 닦았다면,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우면서 이를 더욱 굳히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 핵심이 바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며, 한미FTA 조기 비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7월, 부시를 다시 만나 한미 전략동맹을 문서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그 핵심 내용은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더욱 고도화하고 침략성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 상시 과병법 제정 등을 통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따라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침략전쟁을 공동으로 벌이게 될 것이다. 또,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대한 포위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함께 가담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과 방위비분담금, 미군쓰레기 탄약(WRSA) 매입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미FTA가 비준되면 민중에 대한 수탈과 경제적 종속은 더욱 구조화되고, 미국의 중국 견제의 물적 토대가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더욱 충실한 하수인이 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게 되며,

우리 국민은 더욱 큰 부담과 희생을 치르게 된다.

5. 평화협정 체결하고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 폐기해야

한미FTA와 한미동맹 미래비전 등을 통한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는 자주를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지금 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각계각층, 전국각지로 번지고 있는 촛불의 대열은 직접적으로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에 합의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굴욕적인 결과를 수용하도록 강요한 미국에 대한 반대의지를 담고 있다. 조공외교, 퍼주기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촛불행사나 국회 청문회장 등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것은 그 구체적 표현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촛불의 근저에는 자주적이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3단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이 50년 이상 회피해왔던 한반도 평화협정이 곧 체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국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미군철수를 포함한 한미동맹 폐기, 북핵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군축 등을 연동하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고 자주와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되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들여오는 일도, 민생파탄을 불러오는 한미FTA도,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일도, 침략적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한미FTA 반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현장 _ 글로벌네트워크 국제회의 참가기 및 교포 간담회 |

미 전략사령부,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평화협정 실현운동

상임대표 홍근수

인천 국제공항에서 오마하로

4월 11일 금요일에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도쿄, 시카고를 거쳐 무려 24시간 만에 오마하 공항에 도착했다. 나와 고영대 대표가 미국 중부지역 시골 도시 오마하까지 온 것은 이 곳 크레이턴 대학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알리고, 이어 뉴욕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규탄 시위에 참여하는 한편 워싱턴, 뉴욕, LA 동포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인천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중에 징검이가 문제로 되었다. 징검이가 커서 UA 항공 측이 휴대를 거부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휴대 배낭 속에서 과일 칼이 나와 다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검색 직원이 사정을 봐주어 출국 수속을 도와줬던, 이미 귀가 중인 박석분 팀장을 도로 오게 하여 칼만 돌려보내는 것으로 출국 검색 과정의 혼란은 수습되었다. 경비와 일정 문제로 나리타와 시카고를 경유하느라 고생했지만, 그래도 시카고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순조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때 아닌 오마하의 기상 악화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다. 승객 중 일부는 펜실베이니아 주로, 어떤 이는 오웰 공항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카고에서 오마하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데, 4시간 이상을 시카고에서 묶여 있을 판이니 오마하 공항에서 우리를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는 이현정과 최성희씨는 어찌하랴 싶었다. 이행우 의장에게 알리고 이리저리 연락해 다행히 마중나올 분들의 수고를 덜 수 있었다. 밤늦게 도착한 아담한 크기의 오마하 공항에는 이현정, 최성희 씨, 그리고 숙소를 제공해 준 패트릭(크레이턴 대학 교수)이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 위협의 주범이자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오마하에는 미 전략사령부 기지가 있다. 4월 11일 오후에 미국에서 모인 200여 명과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온 20여 명의 회의 참가자들은 눈보라가 날리는 전례 없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략사령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2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전략사령부의 새로운 임무, 전 세계의 미군기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문제 등을 주제로 전체가 참가하는 회의(plenary session)와 워크숍과 기조(키노트) 연설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우리 일행을 비롯하여 이번 행사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체코, 인도, 일본, 필리핀 등 12개국에서 온 22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오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동북

아 TMD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기도'에 대해서 고 대표가 주제 발표를 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다양해서 내실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워크숍이 끝난 뒤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참가한 한 여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고 대표 발제 글을 실겠다며 동의를 구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고 대표가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 평화파괴의 주범'*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고 대표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고 통역을 맡은 현정씨도 뛰어났다. 그들은 연설 도중 여러 번 박수를 받았고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까지 받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영문 발제문을 받아보기를 원했으며, 후에 글로벌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브루스 개그년의 소개로 유명한 웹진인 <Counter Punch, After Downing Street>에 실리기도 했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고 대표의 연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잘 몰랐던 각국의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한다. 고 대표는 연설 전에 미국의 활동가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연설에 반발할 참석자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하였으나, 나는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걱정할 것 없다며 그의 사기를 북돋우어 주려고 노력하였다.

고 대표 연설 후에 '논쟁적인' (?) 토마스 검블턴 주교의 강연이 있었다.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사목을 하는데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오펜 공군기지의 출입금지선을 넘는 Line Cross로 6차레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도 강연을 아주 잘 하였다.

내년도 글로벌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 문제

13일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글로벌 네트워크의 총회가 열렸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평통사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했던 최성희 씨는 내가 내년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례회의의 서울 개최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발표하도록 성화였으나 고 대표와 의논해서 시간을 더 두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고 대표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려면 한반도 정세와 주체적 조건 등이 성숙되어야 가능하다고 조언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총회가 끝난 뒤 개그년 등 글로벌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들과의 약식 간담회를 가졌는데, 개그년은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평통사가 직접 교섭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내가 7월 서울에 돌아가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더니 그들도 흔쾌히 양해하였다.

오후에는 오마하 시내를 관광하였다. 패트릭 교수의 안내로 전통 시장과 철도박물관 등을 돌아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미 대륙 횡단철도공사가 시작된 지점이고, 세계 제일의 부호인 워런 버핏도 이곳 출신으로 지금도 오마하의 평범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패트릭은 전략사령부를 제외하고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인구 30만의 이 시골 도시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곳은 박용만 선생이 1913년에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군사학교를 설립한 곳이며, 또한 김일성 주석과 항일투쟁을 같이했던 손원태 박사가 살았던 곳이기도 해 한국과 인연이 꽤 깊은 곳이었다.

워싱턴 펜타곤 앞 시위와

나카(미주동포전국협회) 사무실에서의

평화협정 강연

우리는 그날 저녁에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으로 갔다. 오마하 공항에서 고 대표는 일반 승객들과 달리 특수 보안 검색을 받았다. 이유를 물었으나 그들은 달리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또한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가 아주 소형이어서 짐걸이를 그곳에 버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중년의 스튜어디스의 호의와 기지(?) 덕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녀가 조종사에게 부탁하여 문제의 짐걸이를 조종실에 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는 이재수 씨 부부가 마중 나왔다. 밤이 깊었는데도 이재수 씨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모처럼 먹어 보는 김치찌개 식사였다. 식사 후에 메리엇 호텔로 가서 이행우 의장과 만났다. 메리엇 호텔은 서혁교 씨 부인이 근무하는 곳이라 썬 값에 편안하게 묵을 수 있었다.

14일 월요일. 새벽 3시 반쯤 잠이 깨 내친 김에 그대로 일어났다. 아침 7시부터 펜타곤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출·퇴근하는 국방성 직원들을 상대로 한미동맹 폐기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했다. 이들 이슈는 이명박과 부시 정상회담의 의제이기도 했다.

8시까지 진행된 시위 도중 적지 않은 국방성 직원들이 10여 미터 앞을 지나쳤으나 대부분 관심이 없었고, 일부가, 그 중에서도 특히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관심을 갖고 피켓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약 40여분에 걸친 시위 도중에 40세 안팎의 국방성 명패를 단 여성 직원 두 명이 10여 분 간격으로 시위 장소까지 와서 우리들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갔다. 펜타곤 보안 요원들과 카메라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촬영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와 같이 시위를 한 가톨릭 워커스(Catholic Worker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매주 펜타곤 앞에서 시위를 하는 단체다. 지하철 펜타곤 역에 자전거를 세워두는 곳이 집회 공간이다. 이곳을 못 찾아 20여 분을 헤맸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 명의 할머니들과 고등학생인 손녀, 그리고 리더 격인 중년의 남자(아트 래핀)가 우리와 함께 시위를 벌였다. 펜타곤 주변은 시위가 금지되어 있고 사진도 찍을 수도 없다. 아트 래핀의 말에 따르면 9·11 이전에는 펜타곤 주위를 돌면서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경비가 매우 삼엄해져 시위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아무튼 가톨릭 워커스 회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에서 준비해 간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할 수 있었다.

저녁때에 워싱턴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모여 회식을 하였다. 수도 교회에 나가는 강 장로는 내가 왔다는 소문에 어렵게 나온 것 같았다. 강 장로는 김영 목사 덕분에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식사 후에 고 대표의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강연이 있었다. 25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양미강 목사와 수도교회의 조 목사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강연 내용을 새롭게 받아들였으며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나타냈으나, 일부는 부담을 갖는 것 같았다.

이색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톨릭 워커스

15일 화요일, 뉴욕으로 출발하였다. 이행우 씨, 이재수 씨 부부, 최성희 씨와 함께 자동차로 달렸다. 뉴욕으로 가는 길에 가톨릭 워커스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고 대표

의 제안에 따라 다시 래핀을 만나러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바실리카 성당으로 갔다. 유럽의 중세 교회 못지않게 화려하고 큰 규모의 국립 성당이었다.

우리가 성당에 도착했을 때 한편으로는 꽃단장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매우 궁금했었는데, 아트 래핀이 그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미국을 방문한 교황이 다음날 이 성당에 들를 예정이라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교황이 방문하기 전에 우리 일행이 시찰 나온 격이 되었다.

래핀에게 들으니 가톨릭 위커스는 1930년대 형성되기 시작하여, 소유, 직장, 임금, 이윤 추구 등을 반대하며 오로지 노숙자들과 같은 사회 약자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가톨릭 내 집단으로, 우주의 군사화나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의 군사정책에 대해서도 줄곧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해 왔다고 한다. 펜타곤 시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 중 하나가 “Reject the orders to kill(죽음의 명령을 거부하라)”이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평통사가 워싱턴에서 시위를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뉴욕 플라자 호텔 앞 시위와 노뚝돌에서의 평화협정 강연

우리가 뉴욕으로 향한 날은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온 날이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교포들의 연회장인 뉴욕 플라자호텔 앞에서 뉴욕의 청년 단체인 노뚝돌 등과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길을 잘못 든 데다가 교통체증까지 겹쳐 뛰다시피 시위 장소에 도착해보니, 이미 노뚝돌 청년들과 현지 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커다란 엠프를 설치해 놓고 씩씩하게 시위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현수막을 들고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MD와 PSI 반대, 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뚝돌 회원들은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 호텔 정문 앞에는 한인 자동차들로 붐볐지만, 끝내 이명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안에 들어가 있었던지 아니면 후문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정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어쨌든 우리 시위 행렬을 피하고자 한 그들의 행보는 당당하지 못했다.

이어서 노뚝돌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대표의 평화협정 강연이 있었다. 미국인, 남미인, 필리핀인 등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3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이 다양하여 고대표가 강의의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강의를 1시간 30분 쯤 진행되었다. 참가자 다수에게는 워싱턴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세적 한미동맹의 실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았다.

4월 1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월가 증권거래소 방문과 반기문 유엔총장 방문에 맞춰 고대표와 함께 시위를 할 계획이었으나 노뚝돌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온 지 6일 만에 처음으로 시간이 나 권혁건, 최성희 씨의 안내로 뉴욕을 돌아보았다. 저녁에는 모처럼 정화가 시간을 내어 고 대표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으나 노뚝돌에서 재차 강연을 하게 되어 고 대표는 식사 중간에 일어서야만 했다. 나중에 들으니 2차로 진행된 노뚝돌 강연에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회원들 중심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노뚝돌 회원들은 미국의 핵 전쟁계획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며, 매우 진지했다고 한다.

LA에서

17일 목요일. 이날은 LA로 비행하는 날이다.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첫날은 조 사장이 경영하는 호텔에서 묵었다. 둘째, 셋째 날들은 광견영 목사 댁에서 머물렀다.

LA에서도 교포들과 모임을 가졌다. 오인동 선생이 의장으로 있는 6·15 서부위원회 모임과 민화협 인사들이 20여 명 참가했다. 고 대표는 강연 전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된다며 상의해 왔다. 나는 고 대표에게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해주었다. 고 대표는 아주 강연을 잘 하였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다. 뒤풀이에 남은 몇 몇 분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평화협정 실현 운동이 분열되어 있는 국내외 진보진영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큰 희망과 기대를 나타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오인동 의장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오 의장은 전부터 평통사를 알고 있었다며 전에 열린 2003 한민족평화포럼에서도 평통사에서 온 참가자(박기학)가 가장 내용 있는 발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저녁에는 고 대표가 나성포럼 전 회장 김현정 양 등을 만나 LA 지역에서의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함께 모색하였다. 그 역시 평화협정 실현 운동이 입장의 차이를 떠나 단결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고리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미주 지역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토대는 세워졌다는 느낌이다.

다음에는 광견영 목사가 온천장으로 유명한 팜 스프링스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가 이용한 온천장은 한인 손님으로 유지된다고 할 정도인데, 영락교회에서 단체로 온 손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선우학원 박사를 만났고, 저녁에는 안식교 구약학 교수인 김원일 씨(김수임 씨 아들)를 만나 저녁을 같이 하였다.

관광에는 별 관심이 없던 고 대표가 유일하게 가보고 싶어 한 곳이 그랜드캐니언이었지만 아쉽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랜드캐니언 여행에는 2박 3일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요일에 LA를 떠나야 했다.

광 목사는 주일인데도 아침 일찍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광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은 셈이다. 광 목사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면 주일날 설교도 해야 하는데 주일날 떠난다고 하니 섭섭했을 것이다.

나와 고 대표는 공항에서 수속하다가 서로를 놓쳐 버렸다. 공항 안에서 배회하다가 고 대표의 기지로 탑승 출구 근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10여 일 동안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나눈 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고 대표는 서울로, 나는 뉴욕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어디까지 왔나?

- 5월 18일 현재(평통사) 추진위원 1,413명, 길잡이 4,298명 -

회원팀장 박석분

지난 4월 14일 중앙운영위에서는 4월 한 달간 추진위원을 1,020명 모아보자고 결의했습니다.

그 후 5월 25일까지 약 한 달남짓 진행된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상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4월과 5월의 추진위원은 모두 713명. 약속한 목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중앙과 지역의 실무자들과 일부 열성회원이 움직였을 뿐 대표에서 회원까지 전 조직이 발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이나 길잡이 모집에 나서 본 회원들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실현 가능하며,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경험이 전 조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과 지역의 대표, 임원, 실무자, 회원들이 모두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 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통사 회원이면 누구나, 대표든 운영위원이든, 실무자든 회원이든 누구나! 이번 달에는 몇 명을 추진위원과 길잡이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둘째, 추진위원과 길잡이로 만들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셋째, 그 사람들을 언제 어떤 식으로 연락하거나 만나겠는지 일일계획을 세웁니다.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하면 좋습니다.

넷째,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상 네 가지 수칙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실무자들은 회원들이 작성한 계획서를 모아 전체적인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이렇게만 하면 100만 길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평협카페(<http://cafe.daum.net/peaceagreement>)에 오세요.

※ 함께 하고 싶은 몇 가지 소식입니다.

● 나주와 해남, 화순, 정읍, 상주, 홍정, 정읍 6개 지역 농민약국 약사 전원이 추진위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흔연히 추진위원이 되어주시고 전국의 농민약국 약사 전원을 추진위원으로 세워주신 이연임 약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권해효 님과 평통사 홍보대사인 안치환 님,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

서 노래로 힘이 되어주시는 정태춘 님과 이지상, 손병휘 님도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전경옥 님도 이미 3월에 추진위원이 되셨죠. 평화운동이 국민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대구 기독교인들 중에서 “미군이 나가면 북이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허상을 깨고 길잡이로 나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목관화가 이철수 화백이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평화협정 실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평통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 서울과 부천, 인천, 평택, 대전과 홍성, 아산에서, 안동과 군산, 전주, 전남 광주와 무안, 나주, 해남, 강진, 순천, 광양에서 평화협정 실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원도와 부산에서도 추진위원과 길잡이가 탄생했습니다.

● 홍근수, 고영대 대표의 방미활동을 통해 미주지역에서 Abraham Kang 님과 조명철, 천선우 님이 추진위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평화협정운동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나서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달의 추진위원은

민중가수 손병휘 님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음반, ‘촛불의 바다(손병휘 3집)’를 낸 바 있는 손병휘 추진위원을 신사동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해줄 것은 없고, ‘촛대 있게 살아라’는 말을 합니다. 나라도 촛대 있는 나라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광우병도 FTA도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데, 촛대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척박한 문예일꾼들의 환경도 훨씬 나아지겠죠?”

금천어린이 한마당
'평화쓰기 백일장'에서...

●류여진 문성초등학교 5학년 5반

한 민족, 한 겨레로 이루어진 친구, 북녘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너희와 달리 남한에 사는 여진이라고 해. 요즘에 핵 이야기로도 뉴스에 뜨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서 TV, 인터넷 등에 이야기가 많이 뜬다.
또 몇 달 전 이야기지만 왜 우리나라 남한과 너희나라 북한이 통일을 안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궁금, 의문 때문에 나도 몇 가지를 알아보았어.
첫째,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싫어하는 어른들이 있었어. 또 두 번째로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도와줘야 하고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통일을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보다는 좋은 점이 더욱 많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점들은 우선 이산가족을 줄일 수 있고 오랫동안 싸운 6.25싸움이 휴전이 아닌 종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 큰 아픔 민족, 겨레에 큰 아픔을 주는 3.8선을 없앨 것 같아 좋을 것 같다.
또 무엇보다도 너희나라의 민족성과 합쳐보면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있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좋을 것 같다.
여태까지 나의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또 나는 북한, 남한이 통일하는 것을 김구 선생처럼 소원으로 남기며 이 글을 마칠게.
안녕, 새로운 나의 친구 북녘친구야.

2008.5.5. 월요일

통일을 기원하는 너의 친구 여진이가

●이동원 독산초등학교 5학년 7반

어째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됐을까?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남, 북으로 분단됐을 때 다들 전쟁으로 통일을 하자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후회할 선택을 했을까?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 통일하길 바란다.

나도 그렇다.그리고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산가족, 이산가족은 나라가 분단 됐을 때 헤어진 가족들이다. 현재 통일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해서 행여나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예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니 쉽게 잘못되진 않으리라 믿는다.

지금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 사람들은 분단의 비극을 뼈저리게 느껴왔을 것이다.

아마 이산가족이 제일 평화통일이 되는 것을 바랐을 것이다. 어째서 분단이란 비극은 또 이산가족이란 비극을 낳는 것일까?

이런 비극은 그 어떤 비극보다도 사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슬퍼하는게 얼마나 사람을 괴로워하게 만들까?

이산가족들을 보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병은 통일이라는 이름의 치료법 밖에는 대책이 없는 병이다. 우리나라가 분단 된지도 반세기 정도라고 한다. 이 반세기라는 긴 시간동안 분단의 아픔을 안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면 평화통일밖에 없다. 전쟁은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평화로 통일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로 미국 못지않은 강대국이 되리라 나는 믿는다.

11일간의 단식을 마치며

전주평통사 김형근

밥을 굶으며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을 것이지만,
0.7평 독방에 갇힌 이 혹독한 조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단은 몸밖에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부당한 구속은 존재조차 희미해져가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려내고, 6·15의 정당성을 뒤로 물리려는, 반통일적 수구세력의 집요한 공작이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 서로가 이 지긋지긋한 분단을 끝내고 한 핏줄끼리 부둥켜안자는 민족의 대헌장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조국을 일구어 가자는 가슴 벅찬 거래의 일이자, 실천력으로 드러나는 통일의 기관차로 비유해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민족통일의 대강령입니다.

그런데 반통일 수구세력들은 이를 없애면서, 비로소 뚫리기 시작한 원한의 분단선을 다시 막아 나서려 합니다.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고, 통일의 일방인 같은 민족, 북에 대해서는 핵이며 인권을 트집잡아 다시 대결과 적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통일의 성과와 민족의 존엄 같은 것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듯 합니다.

반통일 수구세력들은 집권후에 광포함이 점점 더 도를 더해가더니만, 마침내 합참의장이란 자가 북의 핵시설에 ‘먼저타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쉽게 핵전쟁으로 됩니다.

채래식 무기만 해도 이미 남과 북은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곧 민족절멸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 문화적 재부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으로 이런 파국만은 피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 부시정권에서 특하면 ‘선제타격’ 운운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 우리를 떨게 하곤 했는데,

그런 민족 말살적 발언을 어떻게 같은 민족인 군 책임자가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민족이 집단적으로 애써 이룩한 평화와 통일, 상생의 노력들을 저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 출범 뒤에 고조되어가는 남북 긴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민족통일과 긴장완화를 바라는 피 끓은 마음으로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실 저의 몸의 상태가 고혈압등 정상이 아니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만하루를 숙고한 끝에 단식투쟁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고, 또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의 이 시련은 우리의 미진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겨레에서 6·15공동선언이 있는지 10여 년 동안, 우리 남측에서는 일꾼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각 부분의 교류와 성과에 환호하며 정부 당국자들이나 명망가들의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풀어갔을 뿐 진정 민족구성원인 대중들의 가슴을 두드려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통일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중의 생활상 이해와 절실히 맞닿아 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1972년에도 그랬지만 민중이 배제된 통일은 이렇게 뿌리째 뽑혀 나갈 수 있습니다.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움직임 즉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방해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 제 때에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중들이 조직화된 힘으로 엮어 세워지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단식을 마치며 나로부터 더 낮고 겸손하게 대중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대중을 역사와 민족의 책임 있는 주인으로 모시고 저의 진실이 그들의 심장을 두드릴 수 있도록 더 성실하게 땀 흘리며 바쳐가려 합니다.

다소 장애가 있어 예돌아가더라도, 기필코 가고야 마는 통일의 큰 물결을 대중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속 깊은 다짐을 전하며 이만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의 크고 작은 격려들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4월 9일 저녁

전주교도소에서

서울대학교 앞 인문사회학과 서점
‘그날이 오면’을 운영하는 김동운 회원을 만나...

인천 평통사 조승현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을 택하게 된 이유는?

87년 대우중공업 해고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갖고 하면서 무언가 생활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인들끼리 모여서 운영을 하다가 90년 1월부터는 아내가 운영을 하고 93년부터는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다면?

97년 봄, 가을에 서울시내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의 오면’, ‘장백’, ‘풀무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처가 서점 운영자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당하고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서점으로 돌아왔는데 학생 500여명이 서점 앞을 가득 메우고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났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서점 이상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날이 오면’ 후원회가 2006년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점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약 200명의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서점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강연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세욱 열사가 자주 찾아왔다고 하던데요.

관악구에 사셨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었죠. 우리 서점에 집회안내 포스터나 유인물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부착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런 포스터나 유인물을 우리 서점에 부착했어야하는데 저를 대신 해서 그런 일들을 해 주시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 해주시고,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들에게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해주셨더라고요. 서점 후원회원이기도 하시니까 저에게는 심적,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오셔서 조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물하신다니면서 ‘그날이 오면’ 자체 상품권을 20만원어치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조카를 서점에 보내겠다고... 조카가 오면 새내기에게 좋은책을 많이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하셨죠. 조카가 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해 주신다면.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 그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취업불안에 시달리는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연관시켜 구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만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이런 부분적인 이해가 바로 분파성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고 잘못된 경향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부분적 지식과 정보가 아닌 책, 전체적인 공부が必要です.

●평통사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평통사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남공항 앞에서 오혜란 대표님이 시위하는 사진을 한겨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평통사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김동운 후원회원님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추진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길잡이 팜플렛과 서명용지를 진열해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배너도 달아주시겠다고 하면서요.

지난 13일 마석 허세욱 열사 빈소에서 우연히 만난 후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서점을 나서는 저에게 예쁜 엽서를 선물로 건네주시는 김동운 후원회원님께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동운 후원회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잡이 용지 수거하러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에서 창립한
군산 평통사에 기대가 큼니다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김판태

평통사는 주한미군과 평화군축 문제를 주요사업으로 삼고 이와 관련된 현안을 제기하고 여론화하며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매항리미군폭격장폭격장 폐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F-15K 도입 반대, 공격용헬기도입 반대, 미사일방어체제(MD) 반대, 여중생사건,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미군기지환경오염과 미군범죄, 국방예산 삭감, 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파주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유엔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분담금협정 폐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평화협정 실현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알려내고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 전문운동단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으며 많은 기대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진전된 사업을 위해서는 대중들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힘을 모으는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서 나타난 참담한 결과는 국민대중들이 진보진영 모두에게 사업의 방향과 방식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에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핵심을 틀어쥐어야 하며, 사업의 방식에서 더욱더 대중의 눈높이로 대중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때에 군산미군기지가 있는 군산지역에서 평통사의 지역조직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군산 평통사는 군산 미군기지 지역주민은 물론 군산시민들에게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점과 피해를 널리 알려나가고 군산미군기지를 되찾는 투쟁에 앞장서 노력할 것을 창립총회를 통해 결의했습니다.

군산 평통사의 창립은 평통사의 여러 지역조직의 하나를 창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군산 미군기지는 평택 미군기지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군주둔기지로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주둔할 곳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얼마나 대중화되느냐에 따라 전체 주한미군 철수 운동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군산 평통사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군산 평통사는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정세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지역에서 활발하게 벌여내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군축을 앞장서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군산지역에서 평화협정 실현운동과 군산미군기지사업의 활성화와 연대에 밀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핵폐기장과 직도폭격장 투쟁과 대선이후 침

체되고 분열된 군산지역 진보단체들에게 활력을 주고 단결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역연대의 고리를 찾지 못하고 제각각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과 개별화되고 있는 지역인사들을 모아내는데 힘을 보태는 접착제 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지역에서 군산시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중사업을 개발하여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실천중심으로 단결하고 술선수범하는 연대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 평통사는 물론 앞으로 만들어질 전주 평통사와 함께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서 평통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산 평통사 창립총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군산 평통사 창립에 기대가 크다”는 고귀한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강산의 소나무... 그리고 통일

익산고등학교 2학년 양다솜

밀라노, 파리, 피렌체, 아바나, 벨파스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마음 속 영사기를 통해 내 꿈의 영상들이 조화로운 그런 장소들이다. 그런 곳들은 우리나라에도 많다. 태백, 정선, 영주, 밀양, 통영, 고창, 양평, 그리고 금강산.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북한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로 흘러들기로 들은 묘사만으로도, 감명 받아 읽은 문장들에서도,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의 ‘명산’ 아닌가. 지금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그리움이 더욱 애뜻해져버린……。 그러나 또 요즈음 세대들에게 국내관광이란 어른들이나 즐기는 시시한 방문쯤으로, 게다가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대한 구질구질한 미련을 못 벗은 낡은 세대들의 고루한 집착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또한 관동별곡과 겸재 정선이 아니었다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리라. 방랑 시인 김삿갓과 칠칠이 최북의 애정이 깃든 곳이 아니었다면.

여행 당일은 다섯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했다. 열덥결에 새로 사버린 오리털 잠바에 몇 겹을 더 껴입으니 춥지는 않았지만 무지하게 피곤했다. 여행사를 통해 가는 단체 여행은 흡사 수학여행을 연상시킬 만큼 수박 겉핥기식에 자유마저 제한되기 일쑤이지만 아직 금강산은 개인이 마음대로 일정 정해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아닌지라 어쩔 수 없었다. 버스로 네 다섯 시간쯤 달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현대아산 휴게소에서 집결하고, 사실 강원도서 금강산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니 차타는 건 고성까지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거리가 이토록 힘든 걸음이라니 기분이 묘했다. 북쪽으로 달릴수록 창 밖 풍경은 거칠고 또 웅장해졌다. 멀미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풍경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울 만큼 눈 쌓인 강원도 일대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도착한 남측 수숙소는 공항과 비슷했다. 일찍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공항이랑 똑같았다. 공항 검색대와 같은 무인 검열대를 지나고 마침내 ‘금강산 관광’이라고 쓰인 버스에 올랐을 때는 드디어 북측이구나 하는 흥분보다는 누워서 자고 싶다는 피로감이 더했다. 게다가 십 분쯤 가서 북측에서도 똑같은 수숙을 거쳐야 한다니 지겨웠다.

그러나 막상 동해를 끼고 달리는 DMZ는 피로 이상의 것이었다. 황량한 들판, 수십 개의 지뢰가 숨어있다는 무인지대가 DMZ다. 현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 ‘무인지대’의 풍경은 말없이 철썩 대는 동해와 더불어 쓸쓸함을 넘어선 어떤 장엄함을 연출했다. 맥고모자를 쓰고 뺨루를 마시며 백석이 썼던 동해에 대한 애뜻한 사랑노래가 구절구절 튀어나올 듯, 낭만적인 풍경이었다. 그리고 뻑뻑한 철책이나 높다란 시멘트벽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군사분계선에 어른 키의 반도 안 되는 작달막한 기둥 하나로 외로이 선 것을 보자 허무하고 어딘지 모르게 착잡했다. 그 기둥을 가운데 두고 서로는 가로등의 색깔이 바뀌고, 군복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며, 국적이 바뀐다.

북측 수숙소에 가까워질 무렵 언덕 위에 장난감처럼 뺨뺨이 서있는 북측 군인들이 띄엄띄엄

보인다. 손을 흔들거나 하는 자극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신기한 눈초리 외의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간혹 어린 초병들이 흘끗 눈초리를 하긴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도 긴장과 추위 이외의 감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마침내 공항 뺨치던 남측 수속소와는 달리 천막을 대충 이어 붙인 듯 납루한 북측 수속소에 도착했을 때 임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던 북측 군인의 얼굴도 그랬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이 가장하고 있는 것은 무지이다. 그러나 또 그 무지 아래에는 똑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갖는 애정과 호기심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문득 귓가에서 웅웅거리던 스팅의 노래가사가 떠올랐다. 'We share the same biology, regardless of ideology...'

첫날은 도착하고 수속을 하여 방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해가 저물었는데, 여섯 시쯤부터 금강산 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 있었다. 금강산 온천은 예로부터 그 물의 효험이 유명했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조가 직접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왕실사람들을 거느리고 몸소 행차했다고 한다. 10여 일간 머무른 세조는 신하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불교를 진흥시키는 등 주유정책을 이곳에서도 지시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상원사에 들러 그 곳에서 운수보살이 그의 고질 피부병을 고쳐주었다는 설화가 빛어지는데 역사가들은 금강산 온천에서 머물렀던 효험이 그 때 나타난 것은 아닌가 추측한다고. 그렇게 귀한 물이라 그런지 펜스레 피부가 좋아진 것 같고 목욕 후에 금반지가 유난히 반짝여 보이기도 했다. 처음 가보는 노천탕에서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금강산 봉우리와 반달과 어둠과 별들을 배경으로 몸의 반은 40도의 물에, 반은 영하 10도의 찬바람에 내맡기고 있는 기분도 황홀했다.

옥류동, 구룡폭포와 상팔담은 둘째 날 일정이었다. 그런데 다섯 시쯤 겨우겨우 일어나 잠이나 깨자고 켜 TV뉴스에서 흘러나온 말에 의하면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란단. 서울도 영하 10도를 육박하고 대관령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거참 날씨가 한 번 제대로 잡았군.. 하며 옷 네 겹에 모자 장갑까지 착용하고 등반 준비를 마쳤다. 설봉산은 아름다웠다. 천하 절경이라거나 하는 말은 천하의 산을 다녀본 경험이 아주 없어 함부로 꺼내지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껏 이만큼 '예술적으로 완벽한' 경치는 보지 못했다. 그냥, 그런 듯 했다. 시야가 그대로 도화지며 눈에 찬 풍경이 그대로 작품이다. 김홍도와 정선의 그림에서 종종 뿔어져 나오는 그 美가 산에서 뿔어져 나온다. 그런데 사진은 만족할 만큼 잘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풍경이 담고 있는 '혼'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풍경 자체가 담고 있는 '혼'이나 '정신'이 작품을 통해 보는 이에게 감성으로 녹아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진보다 그림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금강산이 갖고 있는 기운이 너무 세서 투명한 앵글을 통해 여과되기를 거부하고 투박한 붓을 통해 재탄생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그림에서의 김홍도 정도 되는 사진가가 아닌 것이 문제였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날씨가 날씨인지라 폭포와 계곡은 얼어있었다. 흐르는 모습은 필시 더욱 장관이었으리라. 넓은 계곡과 장대한 폭포들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규모였다. 간간이 얼음 깨진 곳으로 보이는 물이 너무 푸르고 맑아서 옛날 얘기에 나오는 젊어지는 샘물 같은 게 이런 물을 보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었다. 폭포 근처로 갈수록 많아지는 바위에 음각한 이름들. 십 년이 되었을지 백 년이 되었을지 모르는 그 글자들은 다소의 오만함으로 끝없이 금강을 탐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구룡폭의 깎아 지르는 듯한 암벽에 시문을 남길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들은 최치원과 송시열 같은 대가들뿐이었다지만 길 근처의 관관한 바위는 온통 옛 선비들이 같은 모양새의 욕심으로 굶고 간 획들이 확연하다. 옛날에는 이런 산에 석공들이 살아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글씨를 맡기고 가면 그대로 똑같이 조각해주는 일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봉은 해당 김규진이 구룡폭포 옆에 폭포의 길이와 맞춰 쓴 세 글자 ‘미륵불’이다. 그 글씨체의 단아함이나 필치의 당대함이 구룡폭포와 껍이나 잘 어울린다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 세기 남짓 살다 갈 인간의 유한함, 그렇기에 처절한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썩끄러웠다.

감상에 피로까지 겹치다 보니 오후 일정을 다 빼먹은 채 정신없이 쓰러져 잠들었다. 겨우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누운 꼴 그대로 나가 북한의 자랑거리라는 교예를 관람했다. 그런데 내게 놀라웠던 건 그들의 화려한 의상이나 묘기가 아니라 바로 음악이었다. 교예 내내 흘러나온 음악은 상당한 수준의 오케스트라 협연 곡이었다. 꼭 클래식이라고만 규정짓긴 뭐하고,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퓨전이 가미된 일종의 드라마틱한 배경음악들이었는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간에 무심코 눈을 돌려 바라본 2층에서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가 전담으로 ‘훈련’을 받았을 테니 연주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짜임새가 유독 훌륭했다. 비록 지나치게 ‘쇼를 위한’ 곡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좀 과장된 통속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세련된 선율을 들을 수 있었다.

멋졌다. 밤에는 호텔 근처 ‘제한 안 된 구역’만을 쏘다니며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찬 공기에 떠밀려 금강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금강산에서의 마지막 날의 아침은 옛날 신선들이 놀았다는-관동별곡에 자세히 나오는-삼일포와 바다의 금강이라는 의미의 해금강, 삼일포에서 맞았다. 깔끔하게 얼어버린 호수란 흔한 구경이 아니다. 그 은반 위에 날카롭게 반사되어 잘리는 무수한 햇빛의 손목들, 눈과 얼음과 호수와 뱃놀이의 전설, 한 눈에 시리게 들어차는 삼일포였다. ‘해금강’은 바다(海)의 금강산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단다. 내가 지금껏 살면서 와본 동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동해가 아닌가. 파도가 바위에 와서 부딪치는 모양조차 남달랐다. 네가 필시 여기서 흘러 그리로 내려가고, 거기서 거슬러 이곳으로 섞여들었을 텐데, 하나 되어 부딪치는 그 눈부심에 우리는 결코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통일이라는 거창한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안 그래도 마찰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딱 하니 버티고 있는 이념의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를 과도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감상이 시리게 불을 스쳤다. 쓸쓸했다. 어쩌면 이곳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여행이 끝나는 것은 당혹스러울 만치 빨랐다. 버스를 타고 처음에 왔던 코스를 그대로 그러나 훨씬 빠르게 달리고 나니 돌아온 집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대로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눈이 적어지고 산이 평야로 변하는 바깥 풍경을 담담히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 잔뜩 고무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던 많은 여행객들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통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주 듣던 말이라 이제는 그저 TV에 나오는 심각한 표정의 국가 원수들이나 황량한 얼굴의 남북 병사들 따위의 이미지들이 혼란스럽게 뭉쳐져, 이제는 정작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는다. 어쩌면 딱딱하고 상투적인 ‘개념을 위한 개념’이 되기 쉬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여

행지가 여행지이다 보니 한번쯤 입에 담지 않고는 여행기를 마무리할 수 없겠다. 내가 2박 3일 이북에서 ‘이남사람’ 취급을 받으며 여행하면서 흘끗 바라본 통일이란 금강산의 소나무에 있다. 비봉폭포의 얼음으로 수놓은 봉황날개에, 해금강 잔물결과 삼일포 눈 덮인 호수에 있었다. 더 이상 구닥다리 이념이나 회미한 민족정신 따위에 호소하기는 그만두자. 적어도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만은 살아있지 않은가. 아름다움만은 통일되어도 좋지 않을까. 피끓는 동포애보다는 미적지근한 연민이, 반공으로 불타는 정신보다는 이질감으로 인한 서늘함이 잦았던 여행이다. 그러나 적어도 막대기로 덩그런 휴전선이 뭔지, 제가 오줌을 찍 갈 길 커다란 바위 위 빨간 잉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새들의 자유를, 더 이상 부러워하고 싶지는 않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따위 원하지 않는다. 그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면 된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란, 금강에 대한 골 깊은 사랑으로 족하지 않을까.

(이 글을 쓴 양다솜 양은 전북평통사 양재석 운영위원의 딸입니다. 좋은 글을 보내준 다솜 양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 편집자 주)

재 재정의(再 再定義)를 향하는 일미동맹

아시아공동행동-규슈 야마구치 실행위원회
(AWC 일본연락회의 전국사무국)
도요타 유키하루
번역 : 나가야 유키코

1. 일미동맹의 재 재정의(再 再定義)?

2008년 3월 16일자 조간 일본경제신문(닛케이신문)에 ‘일미정부는 빠르면 2009년 말에 제2차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닛케이신문 편집위원 이나히사요시(伊奈 久喜)로 일본경제신문사 정치부 및 워싱턴 지국을 거친 인물로 외무성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 칼럼의 논지는 일본과 미국에서의 민주당 정권 성립을 가정하여 과연 향후 일미동맹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예측한 것이다.

이 칼럼의 제목은 ‘일미동맹, 재 재정의가 필요하다’인데, 1996년 일미동맹 재확인(일미안보 재정의)부터 신 일미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책정, 그리고 ‘주변사태법’ 제정까지를 ‘재 확인’ 단계였다고 하고 그 위에 더 ‘재 재확인, 재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점은 네 가지다. 첫째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성장, 둘째 변화된 한반도에서의 대립구조, 셋째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과 인도의 대두라는 지정학적 변화, 넷째 미 동시테러(9·11사건) 이후의 전 세계적 변화이다.

물론 칼럼 형식의 주장이기 때문에 엄밀한 검증이나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칼럼의 필자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는 흥미롭다. ‘빠르면 내년 말까지 제2차 일미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된다’니, 친정부 인사인 칼럼 필자가 모종의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미정부가 그 사실을 공표했는지 과문한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일미정부 간, 특히 일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논의나 합의문서를 보면 일미관계가 그렇게 방향지어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작년 5월 일미안보협의회의 공동발표문 제목이 ‘동맹의 변혁: 일미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진전’이다. 또한 ‘2009년 말까지’로 쓴 것은 올 11월 미국이 대선을 치르고 일본 후쿠다 정권이 유지된다고 했을때 그 임기가 내년 9월 말까지라는 것을 염두에 둔 설정인 것 같다.

이를 전제로 이 칼럼의 핵심인 ‘왜 일미동맹의 재 재확인(정의)가 필요한가’라는 내용은 결국 위에서 인용한 네 가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관련된 것이고, ‘일미동맹을 조정하지 않으면 일미동맹은 타성동맹이 되어버린다. 동맹을 재 재확인하기 위해 제2차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미동맹의 ‘타성동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 ‘타성(惰性)동맹’이라는 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타성동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칼럼의 필자는 일미동맹이 타성동맹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미동맹의 재 재정의’를 주장하는데, 아마도 고이즈미 정

권에서 아베정권으로 이어진 일본정부의 일미동맹 강화노선 지지자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인식인듯 싶다.

그렇다면 고이즈미와 아베로 이어진 ‘타성동맹이 아닌 일미동맹’이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증해 보자.

고이즈미는 ‘세계 속의 일미동맹’이라는 말을 썼다. 2006년 6월 일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 그 말을 명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의 일미협력’을 강조했다. 부시 정권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전면적 지지가 그 계기였다. 아베는 이를 더욱 진전시켜서 ‘세계와 아시아를 위한 일미동맹’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아시아의 강고한 연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2006년 9월 제165국회 시정방침연설). 또 아베는 자신의 ‘세계와 아시아를 위한 일미동맹’론을 그 후에도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다. 아베와 동지적 관계인 당시 아소 외무상은 아베수상의 일미동맹론을 외교방침으로 정하고 ‘자유와 번영의 활’ 구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자유와 번영의 활’ 구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유라시아 대륙 외각에 위치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지원하고 포섭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중국 포위망 형성이라며 반발하는 중국과, 인도와 호주 등의 소극적 자세, 결정적으로는 아베정권의 붕괴 때문에 좌절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미관계가 매우 양호하고 긴밀하다’, ‘흔들림이 없는 일미동맹’ 등의 평가가 일미 정권 내부 및 주변에서 들려온 적은 있어도, ‘타성동맹’이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베가 정권을 포기하고 후쿠다 정권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적어도 이 칼럼의 필자같은 이들은 이대로 나가면 일미동맹이 타성동맹으로 변해 버릴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모양이다.

안보와 일미관계 정책에 관한 후쿠다 정권의 특징이 무엇일까? 후쿠다는 그의 본격적인 시정방침연설(2008년 1월 제169국회)에서 ‘평화협력국가’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 아베정권의 ‘주장하는 외교’(제166국회의 시정방침연설)와의 차이를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미정상회담에 임한 후쿠다는 ‘일미동맹과 아시아와의 공명(synergy, 상승효과를 뜻함)’을 제창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를 (부시 대통령에게)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날에 고이즈미가 2005년 11월 일미정상회담에서 ‘일미관계가 좋다면 중,한, 아시아 여러나라와도 양호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레토릭(정치적 수사)이다. 물론 고이즈미나 아베와 비교하여 후쿠다가 더 낫다는 것은 아니다. 후쿠다 자신도 ‘일미동맹이 안보-외교정책의 기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해 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 칼럼의 필자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미관계(일미동맹)와 대 아시아 관계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후쿠다의 자세조차 ‘일미동맹의 타성동맹화’의 조짐으로 보는 것 같다.

3. 일미동맹의 변화

1996년 ‘일미안보 재정의(再定義)’자체가 냉전 이후의 시대인식 하에서 일미동맹 관계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거기에는 걸프 전쟁에서 일본이 취한 방책-막대한

자금 제공과 전쟁종료 시 손해정 파병-과 1994년을 전후한 한반도의 위기라는 요인이 있었다. 1995년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원에 의한 소녀 성폭행사건에 대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민중들의 분노와 일미안보 반대, 미군기지 철수라는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일미간에 정치 군사적인 역할이나 기능강화가 '재정의'되고 '다시보기'가 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일미신가이드라인 책정(1997년)과 '주변사태법'이 제정(1999년) 되었다. 그 자체가 이미 종래의 일미안보조약을 위반한 내용(예를 들어 안보조약에서 말하는 '극동' 개념을 초월한 '주변'개념 설정 및 '주변'에서의 일미 군사협력 체제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이 미국 부시 정권과 일본 고이즈미와 아베 정권이었던 것이다. 그 부족함은 2001년 9·11사건과 부시의 '선제(핵)공격 독트린', '대테러전쟁', 이를 전폭 지지한 고이즈미의 재빠른 대응을 통해서 실천이 선행하는 방식으로 채워졌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2001년 11월)을 가지고 해상자위대의 아라비아해 파병 등이 진행되었고,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라크 특별조치법'(2003년 8월)을 통해 육상 및 항공 자위대가 이라크에 참전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 규모의 미군 재배치 계획(GPR)이 진행되는 가운데 2005년 2월에 열린 일미안보협의회의(2+2회의)에서의 '공동 전략목표'합의, 2005년 10월 '일미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합의, 2006년 5월 '일미동맹: 재편 실시를 위한 일미 로드맵'합의에 이르기까지 일미동맹의 재편 혹은 변혁을 정면에서 내세운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분석하여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일미안보조약을 크게 이탈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먼저 자위대가 상시적으로 해외로 파병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2년 캄보디아 PKO에 자위대가 참가한 일은 유엔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진 자위대 해외 첫 파병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위대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과 함께 군사행동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 '공동 전략목표 합의'를 돌파구로 하여 일미안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극동'지역을 크게 넘어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을 결정지었다. 그 '새로운 위협'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국 및 중국과 대만의 '양안문제'도 열거되었다. 그리고 셋째로 미군재편으로 인하여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 재편 강화와 일미 군사 일체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미사일 방위(MD)협력도 이러한 동향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타성동맹의 위기까지 지적되고 있다.

4. '타성동맹화'를 돌파시킬 처방전이란?

'타성동맹화'에 대한 처방전을 위 칼럼의 필자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는가? 그것은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해석 변경', '이를 기초로 항구법 형태로 자위대의 국제협력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처방법', '2014년을 목표로 한 후텐마 기지(오키나와) 대체시설 건설의 약속(이행)도 필요하다'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마지막의 '2014년'이란 단순히 후텐마 대체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재편계획 전체가 완료될 시점을 나타낸다.

헌법과 자위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제1항으로 '전쟁 포기'를 명기하고 제2항에는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정'을 명기하고 있다. 이 헌법 하에서 왜 명백한 군대인 자위대가 존재할 수 있고, 군사동맹인 일미안보조약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의 정치과정을 서술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객관적으로는 동아시아 동서 냉전 구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방공 방파제로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일본지배층이 ‘경무장-경제성장’의 논리로 수용하고 헌법의 공동화(空洞化)와 침해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일본 노동자 민중들이 60년 안보투쟁, 70년대 안보-오키나와 투쟁, 반전 평화, 반기지 반안보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결정적으로 그러한 사태(헌법의 공동화와 침해)를 막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듯 헌법 9조의 조문은 바꾸지 않은 채 ‘정부 해석’이라는 수법으로 “군대와 전력은 헌법 상 인정받지 못하지만 ‘자국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능력’은 보유해도 합헌”이라는 이른바 ‘해석 개헌’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개헌’ 수법을 써도 일본 자위대가 타국(미국)군대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일본 방위를 떠나서 동맹국의 방위에 협력하는 일까지는 역시 불가능하고 위헌으로 삼아 온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9조 2항으로 그 행사는 금지되어 있다’는 식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칼럼 필자의 주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라’는 말이다. 이런 주장에는 저류가 있다. 2000년에 발표된 ‘제1차 아미티지 보고’(미국과 일본: 성숙한 파트너십을 향하여-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특별보고서, 2000년 10월)의 시점부터 미 정부 주변에서는 일미동맹 변혁 및 재편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풀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동맹 간의 협력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있다. 이 금지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안전보장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아미티지 보고’(일미동맹: 2020년을 향한 아시아의 전망, 2007년 2월)에서도 “헌법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지역 및 지구 규모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일본이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반영하는 일이며 믿음직스러운 움직임이다. 이 논의는 우리의 통합된 능력을 제한하는, 동맹협력에 대한 현존하는 제약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미국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전보장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더 큰 자유를 지닌 동맹 파트너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본군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가는 법률-각기의 경우마다 특별조치법이 필요하게 되는 현행제도와는 반대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도 (미국이) 격려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정세가 그것을 필요로 할 경우에 짧은 예고기간에 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지닌 안전보장 파트너가 있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9조 개정, 그 중에서도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것과 더불어 자위대 항시 파병법 제정까지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온몸에 받고 아베 정권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국제협력업무를 자위대 본래업무 중 하나로 격상시킨 자위대법 개정까지 실시했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갑자기 붕괴한 것이다. 뒤를 이은 후쿠다-아베 정권에서 시작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서의 논의도 사실상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를 비판하여 칼럼 필자가 ‘일미동맹의 타성동맹화’를 우려하고, 그리고 ‘일미동맹의 재 재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미동맹이 타성동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를 풀고, 자위대 항시 파병법을 만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화’되고 일미안보조약으로 침해당하고 있어도 헌법 9조는 그 조문을 변경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 일본 민중의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민중들의 저항력을 기본으로 일미동맹이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민중들이 가치판단을 다시 할 기회

도 역시 생기고 있다.

5. 일미동맹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차이

일미안보, 혹은 일미동맹을 절대적 가치로 유일하고 절대적인 외교방침으로 보지 않는 ‘선택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제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집단적 자위권 금지를 해제하라는 요구나 자위대 항시 파병법 제정 요구 등 일본 지배층에 대한 미국의 권고와 기대는 여전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을 전망하여 미-중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망을 알아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일미동맹은 더욱더 미국의 국익에 따라 규제되는 방식으로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미)동맹은 계속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핵심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이 전략의 성공 열쇠는 동맹이 공통의 위협에 기초한 배타적인 동맹에서 공통의 이익과 가치관에 기초한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국익은 일미동맹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로지 일미동맹 재 제정의를 위해 헌법 개정이나 자위대 항시파병법 제정 등을 하려는 일본 측의 사고방식과 앞서 얘기한 이런 미국의 관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단’에 불과한 ‘일미동맹’이 일본에서는 바로 ‘목적’ 그 자체인 것이다. 물론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의 내용이 차기 미국 정권에서 채용될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언급은 그만하겠지만 일미동맹은 미국에게는 이미 주어진 전제이며 게다가 일본에게는 긴밀화의 외길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 지배층의 일부분이 칼럼 필자가 말하는 헌법 개정 등으로 일미동맹 재 제정의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지배층 모두가 그 방향으로 일치한 것은 아니다. 지배층의 일각을 구성하는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는 이라크 파병을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연장을 반대하고, 유엔을 기축으로 한 일본의 안보 외교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오자와가 일미동맹을 부정하는 정치가가 분명 아니지만, 대미 일변도인 안보 외교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유엔 중심주의라는 다른 길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지배층의 거의 대부분이 ‘일미안보체제 견지가 일본외교의 기축’ 이라고 보고 있다 해도 엄밀하게 관찰하면 일미동맹 혹은 일미관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존재방식이라는 점에서 굳게 결속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지적했지만 ‘평화협력국가’, ‘공명(상승효과)외교’를 말하는 후쿠다 자신이 고이즈미-아베 정권의 일미동맹 강화 일변도 외교노선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후쿠다가 일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후쿠다 자신이 자위대 항시 파병법을 주장하고 있고 헌법 9조 개정안을 정리한 자민당 ‘신헌법 초안’(헌법 개약안) 기초위원회의 안전보장 위기관리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고이즈미-아베 정권의 일미동맹 강화 일변도 노선과의 차이는 일미관계와 아시아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려는 점이다. 또한 개헌 주장을 소리 높여 주장하면서 일본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수법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6. 미군기지를 철거하고 일미안보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하여

이렇게 ‘일미동맹 재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칼럼의 논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해 봤지만 일미동맹 재 재정의, 혹은 일미안보 재 재정의는 불필요하며, 일미안보조약과 함께 모두 부정하는 길도 있다. 노동자 민중 측에서의 대항 방침도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 이래로 급속히 ‘일미동맹’이라는 용어가 낡아지고 또 그 내실도 비약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또 그것을 ‘제2차 아미티지 보고’에서는 극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미동맹이 ‘오키나와와 일본본토에서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담보한다’라는 ‘일미안보조약’을 근원으로 하여 성립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다. 또한 예전부터 일미안보가 필요하고 불가결하다고 한 근거 중 하나인 ‘일미안보가 있어서 일본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따위의 주장은 저성장 시대인 지금은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미안보체제를 배경으로 미국의 관여 하에서 성립되고 계속된 ‘반공-친미(친일)’를 기치로 한 개발독재정권들에 대한 자본투자, 교역관계를 통해서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대국으로 뛰어올랐는데 이제 그 아시아 나라들은 독자적 경제발전을 달성하여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까지 이르렀다. 원래 ‘반공’의 대상이었던 소련은 붕괴되었고 중국은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국전쟁을 경제부활의 호기로 삼고 박정희 독재정권 하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을 발판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한 일본에 대한 계산서가 돌아오고 있다. 일제의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청산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반일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변영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민중들의 상호교류가 일미안보 때문에 얼마나 저해되었는지도 동시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원래 ‘안보 변영론’이라고 해도 노동자 민중들이 그것을 실감할 수 있던 때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없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났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그 자체가 일미안보체제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2차 대전 후 일본의 경제성장에서 일미안보체제가 ‘객관적 조건 중 하나’이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그때그때의 경제정책과 그 밑에서의 기업 활동,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노동(바꿔 말하면 착취이기도 한)이라는 관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을 ‘경제적 번영이 있었다. 그것은 안보 덕분이다’라고 하는 식의 난잡하기 짝이 없는 주장은 조잡한 데마고기(허위적인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게다가 노동자 민중의 생활차원에서 볼 때 경제성장과 병행하여 군사비도 천정부지로 비대화되어 왔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복지로 돌려라’라는 요구는 1960년대부터 민중들의 요구이기도 했었다. 미군기지 철거와 자위대 증강 반대, 일미안보 철폐는 예전부터 계속된 민중들의 투쟁 과제이다.

지금의 ‘일미동맹 재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항시 파병, 미군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신으로 무장하게 국민들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미군기지가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일미동맹 강화’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미군범죄, 특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흉악화되고 있다. 광에서의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61억 달러를 일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포함해서 미군재편 비용이 3조 엔에 달한다고 한다. 주둔미군을 위한 소위 ‘배려예산’(주일미군 주류경비부담)은 1978년 시작부터 누계로 3조 엔에 이르렀다(2008년도는 2083억 엔). 그만큼의 부담에 걸맞은 일미안보

(일미동맹)의 은혜가 과연 있었는지 따져보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은 모두 일미동맹(일미안보체제)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미동맹 강화와 재편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보 번영론’이라는 논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지적해 두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냉전 시대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저성장 시대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안보 번영론’이 당연히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대신에 ‘안보=국익론’이 크게 융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국익이란 무엇인가’ 또는 원래 ‘국익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는 여기서 안 하겠지만 이 ‘안보=국익론’의 대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정치운영이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이념과 사상으로 만연되게 됨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을 일본기업의 다국적 기업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추구, 이를 위한 경제-재정-통상정책 뿐만 아니라 안보-외교정책까지 동원하는 일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때문에 바로 국익이란 그러한 일본 다국적기업의 이익과 거의 같은 의미다. 이런 국익과 안보를 등호로 이어 ‘안보=국익론’이 된 셈이다. 거기서는 국민의 경제활동의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막대한 빈곤층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일본 사회 내부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국익론’이 마치 노동자 민중들의 이익인 것처럼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는 날마다 강화되고 있는 미군기지나 일미 군사 일체화의 현실, 기지 피해 확대 속에서는 통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미군재편 반대를 내걸고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본토에서도 새롭게 기지 철거를 요구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확산되어가고 있다.

미국에 대한 기지 제공뿐만 아니라 제공한 기지가 착착 강화되고 있고 새로운 기지까지 만 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지 피해가 늘어나고 살림살이는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허용될 리가 없을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본토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군 기지를 모두 철수시킬 민중들의 투쟁은 바로 일미동맹의 근원적 본질인 미군기지라는 존재 자체를 없앨 방향성과 힘을 갖고 있는 투쟁이다.

7. 끝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대해

일본 지배층은 일본 노동자 민중에게 마이너스일 뿐인 일미동맹과 일미안보를 국익이라고 하고, 그게 전체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반도 위기’, ‘북한의 위협’이라는 일본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지배층 모두가 부추기고 있는 데마고기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일소되지 않은 일본민족주의와 조선민족에 대한 배타주의가 그것을 증폭시키고 있다. 바로 일미안보 성립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변천과 재편 강화는 끊임없이 ‘외부에서의 위협’이라는 거짓선전과 함께 이뤄져 왔다. 냉전의 해체로 이른바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 다음에 대두된 것이 ‘한반도 위기와 북한의 위협’이었다. 9·11을 계기로 한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마저 일본에

서는 ‘납치는 테러다’라는 식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문제로 확장되고 대치되어 왔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미동맹 재 제정의’나 ‘타성동맹화의 우려’가 말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민중 차원에서도 일미안보와 일미동맹을 다시 파악할 기회이기도 하다. 하물며 눈앞에서 강화되어가는 미군 기지나 일미 군사 일체화가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는 일로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할 때, 군사가 아닌 평화를 요구해야 하고 나라의 안전이 민중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만이 민중들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런 시기에 평통사가 주도적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통해 안보 외교정책 차원에서 민중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장대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확정되고 노무현 정권 시절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운동의 이념과 사상이 한국의 노동자 민중 속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자 민중들도 모두 함께 이러한 한국 민중들의 투쟁을 자기 자신의 투쟁과제로 삼아야 하며 우리는 거기에 앞장설 것이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전쟁종료, 유엔군사령부 해체, 외국군 철수’를 2대 핵심과제로 내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은 일본 노동자 민중들이 무조건 지지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 그리고 이 운동과 함께 일본에서의 미군재편 반대, 미군기지 철거와 미군 총 철수 및 일미안보 폐기 투쟁을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 민중의 장대한 투쟁의 의미가 반감되게 된다.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의 발전은 일미안보조약 파기와 일미관계의 ‘보통 국가 간 관계’로의 전환(즉 ‘일미동맹’ 폐기)이라는 선택지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열어가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우리가 강력히 지지하고 발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할 투쟁이다.

우리는 헌법 개악을 저지하고 미군재편을 분쇄하는 투쟁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 19일)

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갈 수 있다

폴무질 일꾼 은정복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일하는 책방으로 사복 경찰들이 자주 들락거린다. 그들은 내게 말을 걸지도 않고 30분 가까이 책방을 구석구석 살핀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내는 ‘실천’,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노동자’, 다함께 기관지 ‘맞불’,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서 내는 책들을 찾았다.

난 1993년 봄부터 책방을 꾸려오고 있다. 그때는 김영삼이 대통령이었다. 그땐 이런 경찰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왔다. 스스로 어디서 일하는지 밝히기도 했다. 책방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비롯해서 국가정보원, 군기무사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사가는 책들은 사회주의 생각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았지만 책방에서 책을 파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 있나 싶었다.

그러다 난 1997년 4월 15일에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판매 죄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갔다. 서울구치소에서 한 달을 살았다. 그때 문제가 됐던 책들은 ‘전태일 평전’, ‘월간 말’, ‘철학에세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같은 책들이다. 그 책들은 지금도 큰 책방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하지만 큰 책방 대표들이 잡혀 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날 서울에 있는 인문사회과학책방 대표들 세 사람이 한꺼번에 끌려갔다. 그 뒤로 조직 사건이 예닐곱 개 터졌다. 그렇게 공안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해 대통령에는 김대중이 뽑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면서 책방에 뜸하게 오던 공안 경찰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활개를 친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에 만든 치안유지법이 그 어머니다. 그 법은 일제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만들어졌다. 그 법을 1948년 12월 1일에 이승만이 다시 고쳐 만들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60년이 된다. 그동안 그 법으로 죽거나 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더러운 정권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 세상을 맑고 밝게 바꾸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쓰였다.

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따라서 벌을 받았다. 내가 국가 존립, 안전, 자유 민주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책을 팔았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모두 공산당원이 돼서 총을 들고 나가 이 나라를 뒤집어엎을까. 그렇게 쉽게 세상이 바뀐다면 진짜 살맛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 돈에 눈먼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좋다고 떠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깃소리도 안 하고 살까.

아무튼 책방 일꾼이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가. 오히려 대운하를 만들어 자연과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고, 백성들이 먹고 죽을병에 걸리지도 모르는 미국 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 들여오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이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뿌리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한다.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또다시 끌려가서 양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운동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면 좋겠다.

헌법에도 보장되었듯이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사상과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 먹을

거리를 일구는 농사꾼과 이 땅 목숨불이들이 사는 데 꼭 있어야 할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회주의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그런 세상이 와야
어른들 욕심으로 아파하고 쓰러지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온 세상 아이들 얼굴에 환한 웃음
꽃이 핀다. 그런 날을 앞당기는 데 내가 꾸리는 작은 책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8년 4월 22일 화요일 새벽을 지나 아침이 환하게 밝은 무렵)

서울

지난 5월 1일, 서울 평통사는 중앙 사무처 식구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가 열리는 대학로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오전 11시에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대대를 아프간에 파병하는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고, 사무실에 들어와 서둘러 점심을 먹고 대학로로 향했습니다.

이미 대학로에는 공공운수연맹 등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대회가 시작되면 훨씬 많은 노동자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일 것이므로 대열 중간쯤으로 예상되는 곳 인도에 책상을 펼치고 앰프를 설치했습니다.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서 캠페인을 벌이는 곳도 곧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책상에 서서 지나가는 시민들께 서명을 받기 보다는 집회 대열 안으로 들어가서 길잡이 서명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4~5명이 함께 대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주한미군을 내보낼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이고, 우리도 한 번 주한미군 없는 나라에서 살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외치며 길잡이 용지와 서명지를 돌리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서명과 모금함이 쉴 새 없이 대열 사이를 오가느라 정신없을 텐데도 우리들이 외치는 내용을 잘 듣고 꼼꼼히 길잡이 용지를 읽어보고 서명을 해주는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참 멋진 모습입니다. 이 날 서울은 추진위원 6명, 길잡이 220여명을 모았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금천 어린이 한마당 행사에 함께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분회는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기>를 진행했구요. 또 미리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평화 글쓰기 - 백일장>도 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캠페인도 아울러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이니만큼 길잡이 서명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에게는 나무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주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색색가지 펜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예쁘게 써서 목에 걸고 가는 모습이 참 예뻐했습니다. 이 날 캠페인 때 70여명이 길잡이 서명을 해주셨고, 한 명은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부천

평화군축 집회 - 부천 평통사의 힘~ 여성분회!!

보일러가 말썽을 부려 부천을 홀로 지켜야했던 한 명의 분회원을 제외하고 분회원 전원이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78차 평화군축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한 둘씩 달린 아줌마 분회원 전체가 집회에 참가한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척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실천 활동에 나서려는 여성분회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분회의 고민, 분회특성에 맞는 실천과 활동을 찾아보자며 한 분회원의 제안으로 봄부터는 우리도 돌아가면서 평축집회, 반미연대집회 참가 해보자고 한것이죠.

여성분회의 막둥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은현씨가 웃음을 살짝 지으며 “이번 달 집회는 우리 모두 같이 가면 안되요? 그 다음부터 둘씩 가고요...” 집회를 처음 참여하는 은현씨의 심정을 공감하며 모두 함께 “좋지~” 이렇게해서 평화군축 집회를 여성분회원들 전체가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석진오빠와 창수의 도움으로 편하게 집회에 참가하고 아이들의 웃음과 어르신들의 푸근함 속에 따뜻하게 치러진 집회였지만, 마음에는 바위덩이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가 전면개방 된다니 일 년에 두어 번 먹는 쇠고기는 그렇다 치고 하루가 멀다하고 먹는 라면이며 아이 아플 때 먹여야하는 알약은 어쩔 것인지... 미국을 위해,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우리들의 세금을 맘 놓고 써대는 나랏님과 결국은 그 총부리가 우리를 향해있는 현실이 생생히 전해지는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마치고나서 맛난 설렁탕을 한 그릇 푹푹하고 오랜만에 서울나들이를 한 아이엄마들의 정열(인사동이든 어디든 가고 싶어 고민이 역력한 ㅎㅎ)을 잠재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성분회는 또한 육아문제, 평협실현을 위한 길잡이모집, 추진위원모집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정숙(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알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리나(5/4), 조영선(5/4), 홍제숙(5/8), 김덕근(5/10), 김성근(5/12), 손종욱(5/21), 이영재(5/22), 이옥화(5/23), 김인영(5/25), 강신광(5/30)

부천 평통사와 함께 하게 된 새로운 회원들을 환영합니다.

강신광 김종대 김진숙 김정호 박병훈 손장현 정승현 최경호 최정규

신정길 공동대표 부친상

신정길 부친평통사 공동대표님 부친께서 5월 3일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신정길 공동대표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올립니다.

인천

198명의 평화협정 길잡이를 만난

세계 노동절 대회

5월 1일 대학로에서는 1만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제 118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통사는 “미군 퍼줄 돈으로 민생문제 해결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참가하였습니다. 인천 평통사에서는 염성태, 김일회, 오혜란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김원식 회원과 김강연, 유한경 부장은 모금함을 만들어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운동’ 길잡이 모집을 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명 한명 설명을 하며 모집을 해야 했지만 이 날 한명의 추진길잡이(추진위원)와 198명의 길잡이, 그리고 약 13만원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집회는 유정섭 사무국장의 재밋는 구호와 김원식 회원의 8자 구호에 맞춘 행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진길잡이는 길잡이 10명을 모집하는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평화협정 추진길잡이 사랑방

4월 29일 박석분 평통사 회원팀장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추진길잡이(추진위원) 사랑방은 4월 한달 동안 길잡이 모집활동을 통해 느꼈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21명의 길잡이를 모집한 김보희 회원과 200여명을 모집한 김원식 회원, 300여명을 모집한 김일회 공동대표의 활동 사례를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의 공통점은 ‘1.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뿌듯한 사명감을 갖고 기쁘게 활동한다. 2. 팜플렛과 추진위원 자료집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 3. 상대방이 서명 안 해줄까 두려워 말고 누구에게든 서명을 권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만명이 모여 민주화를 이뤄냈던 87년 6월 항쟁을 생각하며 10만, 100만명의 길잡이를 찾아내자는 강사님의 말씀과 모범 추진길잡이를 사례를 통해 참가자 모두는 미처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 유한경(인천 평통사)

[알립니다]

가입을 축하합니다.

이화전, 김미영, 김지은 님의 후원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경기남부

첫 번째 평택 월례집회

5월 2일 5시부터 평택역에서 5·4행정대집행 규탄,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한미 정상회담 규탄을 주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일광장 선생님들이 멀리 성남에서 오셨고 평택과 안성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기아와 쌍용차 조합원들도 퇴근하자마자 결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평택지역에서 함께 싸워온 에바다 장애인 센터분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경기남부 평통사 이종필 공동대표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면 제일 먼저 평택 미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평택미군기지투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탄압과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금만 4억이 넘어섰고 수십 명이 재판중입니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부과된 행정대집행비용은 애초 1억 8천 만원인데, 한국정부는 이 돈을 기필코 받겠다고 주민들을 압박하여 지금은 6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 공장의 비정규직으로 아파트 경비로, 읍사무소의 공공근로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이 멀리 충청남도 당진, 서산에 땅을 사고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평택지역의 농민들은 치솟는 땅값으로 농사지을 땅을 얻지 못하고 부재지주들의 투기용 땅에 소작을 짓고 있습니다. '황해경제특구'로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장미빛 환상이며 평택항에서 K-6안정리 미군기지를 거쳐 경기북부 무건리까지 연결되는 철도와 잘 닦인 도로를 주한미군의 전용물로, 평택은 미군의 전략적 군사도시로 될 것이라는 의구심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집회로 경기지역과 평택지역에서 평택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연대와 시민다수의 참여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소 수입반대 촛불집회

경기남부지역의 수원에서는 촛불집회가 3일부터 시작되었고, 오산지역은 7일부터, 평택과 안성은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평택시청에서 광우병 반대 시민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서슴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평택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서명하였으며 고등학생들은 서울 촛불에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9일 평택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과 학교들의 학생과 선생님이 집회장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막아 집회 참가자들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도 호응해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명박 탄핵카페'의 운영진들이 참여하여 격려하였으며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년 여중생 미군탱크 압사사건과 이라크 침략전쟁에 분노한 평택지역 촛불은 500여 명이상 참여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는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로 달려가 지역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평택지역은 앞으로도 축볼문화제를 계속하여 진행하며 전국적인 상황에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호현(경기남부 평통사 사무국장)

대전충남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

우리는 각자가 수없이 많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지난 4월 21일 푸른영상 소속으로 대추리에서 지킴이로 활동했던 김준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길'을 상영하였습니다.

대추리 주민이신 방효태 할아버지를 통해 진정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생명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구어 온 땅..그리고 미군기지... 거대한 국가의 폭력 앞에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방효태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이지요.

대전에서 출발하여 홍성, 천안, 아산, 예산, 부여....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의 '길'이 대추리 주민분들이 미군기지에서부터 대추리 마을을 되찾아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평화롭게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길', 방효태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 '길'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의 '길'이라 확신하며 오늘도 멀지만 가까운 '길'을 떠납니다.
*김준호 감독의 대추리 다큐멘터리 '길'을 상영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분들은 언제든지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42-635-5812)

평화야 기다려라~~^__^

우리 어린이들은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5월 5일 홍성에서 홍성 YMCA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무기장난감 바꿔주기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평화의 꽃 달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꽃 피켓과 비둘기, 평화의 꽃 등을 준비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홍성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평화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 줄지... 하지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부질없을 정도로 행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평화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지켜요”, “전쟁이 싫어요”, “통일이 되고 싶어요. 같은 나라끼리 절대 싸우지 않고 싶어요.”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과 부모님의 굉장한(?) 호응으로 준비해간 평화의 꽃과 비둘기, 야채 선전물까지 모두 동이 나서 행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엇보다 천안역에서 잠시 홍성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호두과자를 샀는데 정말 인기 최고였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홍성 어린이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도정(대전충남 평통사 사무국장)

전북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일주일째 계속해 온 전북지역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쇠고기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월 6일, 전북대학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계속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더욱 강렬한 수입반대 의지를 품고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노래와 삼행시, 장기자랑에 자신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무국과 이창근 회장님이 참여했습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캠페인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평통사는 익산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 배포와 서명을 통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를 알려 냈습니다. 6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날 서명에 동참하였고, 홍보물을 받아 보시는 시민들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두 시간 여 진행된 캠페인엔 김대송, 박영천, 서정대 운영위원과 사무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축구분과모임 풋살경기

○일시 : 2008년 5월 1일, 오후7~8시30분

○장소 : 배산 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참여 : 김대송 분과장, 서정대 총무, 박영천 운영위원, 이정현 회원, 최성훈 외 2명

분과모임은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축구분과모임은 모임의 특성상 정기적인 모임의 필요성이 있어, 매주 또는 격주로 풋살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첫 풋살 경기에는 모두 7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약 한 시간 반가량의 경기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시간이였습니다. 비록, 첫 모임 참여 인원이 적은 수였지만, 참여회원을 확대하고 축구분과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으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더욱 대중속으로 들어가는 평통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밑바탕이 될 축구모임을 활성화를 바라봅니다.

| 최성훈(전북 평통사 사무국장)

군산

4월 26일 마침내 군산 평통사가 창립했습니다

군산 평통사 회원, 후원회원을 비롯하여 전북과 군산지역 단체와 평통사 본부 및 지역평통사에서 오신 내빈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 평통사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전북과 군산지역에서 군산농민회 권성근 회장과 조판철 회원, 군산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대표 정민 목사님과 임춘희 조규춘 이인구 석일 목사님, 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 대표 이강실 목사님, 여성구 대우자동차노조 현장조직 참소리 의장, 참주거실천연대 김성훈 공동대표와 회원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오두희 소장, 우리땅군산기지되찾기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 채옥경 군산시의원, 채상원 민주노동당 군산시당 사무국장, 돌베개교회 교인들, 홍진웅 군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창립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창립총회는 서동완 운영위원(군산시의원)의 사회로 1부 기념식, 2부 창립총회, 3부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 군산 평통사 대표 유승기 목사님은 대회사를 통해 “전반적인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당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위험하고 교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이를 견제할 진보진영이 분열과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군산 평통사의 태동은 큰 의의를 지니며, 우리에게 커다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미친 소의 난동과 같은 시대의 강포한 흐름을 막아내는 정의의 투사가 되자”고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임대표이신 문규현 신부님은 축사에서 “오늘 군산 평통사의 창립은 귀한 일꾼을 파견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과 지역이 한 마음으로 일구어낸 뜻 깊은 과정의 산물입니다”이라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모든 평통사 조직과 회원들의 가슴 속에 자랑스럽게 빛나는 군산 평통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며 함께 외친 “잘가라! 주한미군, 실현하자! 평화협정, 되찾자! 군산기지, 폐쇄하자! 직도폭격장” 구호 속에 앞으로 군산 평통사가 헤쳐나가야 할 길과 회원들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비탕과 곱창전골로 준비된 뒷풀이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건배를 하며 군산 평통사의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강정구 교수님의 평화협정 강연회가 5월 29일 열립니다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군산지역에서 대중적으로 펼쳐나갈 첫 사업으로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평화협정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북미사이에 북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5월말 6월초 6자회담 개최가 예고되는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강연회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강당(나운동 주공 4차아파트단지 내)에서 5월 29일 (목) 7시에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 회원 여러분과 주변분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태(군산 평통사 사무국장)

광주전남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위원, 길잡이 조직에 나서는 태세 마련!!

지난 4월 한 달 광주 전남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회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태세들을 갖추는 것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중들의 정서와 추진위원 참여 과정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김종일 처장과 유영재 정책실장의 교육을 통해 내용적 준비를 갖추고 5월 2일 평화카페를 통해 중간 총화를 하였습니다.

4월 무안, 해남, 나주 모임을 통해 많은 추진위원이 가입되었고, 해남 농민약국 김은숙 약사님을 비롯하여 몇몇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회원 모임을 통해 회원들이 평협 운동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중요하게는 각 지역별로 추진위원 조직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5월 2일 [강정구 교수와 함께하는 평화카페] 아침부터 배민혁 학생과 김용성 목사님, 황승원 님, 김순종 전도사님께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구 도청 앞에서 유니버시아드 게임 유치를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가 있어 오후부터 금남로 입구에서 구 도청 앞까지 전면 차량 통제까지 하는 등 평화카페가 제대로 진행될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악조건을 뚫고 회원 및 주변 단체 분들이 50여명이 방문(건강이 안좋은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접근 엄두를 못냈답니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강정구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정구 교수님께서도 여전히 열띤 강연을 해주셨고, 이에 여덟 분이 추진위원으로 가입해 주셨고 송경희 목사님과 전경일 님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행법 스님, 오병운 민주노동당 서구지역 위원장, 범민련과 실천연대, 6·15공동위 김정길 대표님 등 지역의 다양한 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열기도 있었다”며 기뻐하셨고, 노고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또 인터넷을 보고 평화카페에 참가한 광주보건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 정동석(광주전남 평통사 사무국장)

안동

안동 평통사 4월 정기 운영위원회가 4월 3일(수) 저녁 7시, 특별한 행사를 겸해 안동시 민주노동당사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한 행사란 근현대사의 엄청난 비극이자 동시에 커다란 역사의 변곡점을 이뤘던 제주 4·3항쟁 기록 다큐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주 4·3기록영화의 상영 준비와 제반 준비는 우리 안동평통사의 회원이자 민주노동당의 열성 당원으로 제주가 고향인 김상범 군의 제안으로 이뤄지게 되었는데 이날 영화 관람은 우리 안동평통사 운영위원을 위시해 지역의 민주노동당원 등 약 2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4·3사건이 가지는 무게만큼 시종일관 무거운 침묵 속에 그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또 공분 속에 다시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 상영 전에 진행된 4월 평통사 운영위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첫째, 4월 6일(일)을 기해 경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거행될 인혁당사건 49제 추모제에 참가한다. 둘째,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추진위원회 안동평통사 운영위원은 전원 동참한다. 셋째, 돌아오는 4·19를 기념하여 지역민주인사 초청 4·19 기념 안동민주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참가자로는 김창환(회장), 강석주(사무국장) 등 10명이었습니다.

올 해로 인혁당재건위(1975년 4월 9일) 사건 발생 만 33돌을 맞아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녀을 기리는 행사가 4월 6일(일) 경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안동에서는 평통사를 대표하여 김창환, 배용한, 김현택, 한철희가 참가하고 헌화하였습니다. 한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에 일어난 당시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으로 사형선고 하루 만에 형을 집행하여 전세계적으로 사법살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날 추모제는 인혁당사건 추모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대구, 경북지역 시민단체와 교수단체, 그리고 대학생과 유가족 등 약 2백여 명이 행사 내내 엄숙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당시 희생자의 억울한 녀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역사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했습니다.

4·19혁명 48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에선 처음으로 지역의 각 민주단체의 단합을 꾀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평통사 강석주 사무국장은 취중 축구 경기 중에 넘어지는 사고가 나는 등 작은 불상사가 없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맘껏 웃고 요란하게 떠들어 댄 흔치 않는 자리로 참가자 모든 분들이 만족해한 자리였다는 평입니다. 더욱이 이날 참가자 전원으로부터 평화협정 추진위원회와 길잡이 동참 서명을 받아 미군 없는 진정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을 다 함께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 한철희(안동 평통사)

대구 준비모임

대구 평통사 평화협정 활동소식

대구 평통사 소식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관련한 내용뿐입니다. 그만큼 이 운동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선포식 이후 슬슬 발동을 걸었던 추진위원과 길잡이 모집운동은 이제 본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실현운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진위원과 연고자들 중심으로 활동을 폈고, 또 길거리나 대형 집회 때 캠페인을 했고, 다음으로는 대구지역 진보운동 단체들에 제안서를 보내 평협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상적 활동을 편 추진위원을 소개합니다. 서일웅 목사님은 시무하시는 마가교회 전교인들로부터 길잡이 참여를 받았습니다. 마가교회는 대구에 있는 교회들 중, 한반도 평화협정 현안을 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교회입니다. 항상 일이 잘 되도록 물꼬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마가교회 교인 두 분이 추진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정금교 목사님은 대학교 강의시간에 평화협정에 대해 PDF 파일로 시청각 설명을 하시며, 아주 헌신적으로 길잡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간 접촉한 다른 분들은 학생들에게 평협 길잡이 공개모집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보아 정 목사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든든한 동지애가 현실난관을 돌파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백창욱 준비위원의 아들인 백준기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급우들에게 길잡이 모집을 30명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평협 현안을 잘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학생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미군을 쉽게 보낼 수 있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중운동으로 친미자발 노예주의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캠페인은 경북대 앞에서 한 실패를 거울삼아더욱 철저히 준비를 했던 부산역 화물연대 집회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의 열성이 이룬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무작위 캠페인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여간 6월 1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통일마라톤 대회 때 할 캠페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실패하든 성과가 있든 현장활동 자체가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전국 평통사 활동가들이 대중을 직접 접촉하는 선동선전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역량이 증진됩니다. 그리고 활동가 사이의 동지애도 배가합니다. 평협 캠페인을 하면서 현장에서 대중을 직접 접촉하므로 대중의 관심사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약점이나 강점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도 깨닫을 수 있습니다.

평협실현운동 덕분에 대구지역의 많은 진보운동단체와 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구평통사의 존재도 확실히 인식시켰습니다. 아쉬운 것은 각자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평협운동을 우리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지만, 실천하면서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목사로서 신앙고백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평협실현운동에 함께 계심이 분명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 그날그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마다 막힘없이 일이 풀리는 것을 여러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평통사 동지여러분! 우리 후손은 주한미군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더욱 분발합시다.

| 백창욱(목사, 대구 평통사 준비모임 대표)

| 사진이야기 |

"컷구멍이 막히지 않았으면 우리 목소리 좀 들으슈~!"

지난 4월 22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군단 사령부 앞에서 훈련장 확장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농사를 보장한다면서 포크레인을 동원하며 날이면 날마다 농토 파괴, 상수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과 협박, 둘러대기의 능수를 부리는 국방부 1군단 관계자들과는 달리 주민들은 이날도 집회를 하면서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가 아니라 확장 중단이라구..."

"사고뭉치 F-15K 한대 덤으로 받은게 자랑이냐?"

4월 28일, F-15K 추가도입 및 원거리 공격탄(JASSM)을 대량 구입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무기들을 사들이는데 드는 돈은 무려 2조 6천억 가량! 국민들 등쳐서 그 세금으로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불려주기에 여념이 없는 국방부는 F-15K 한대 덤으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그래봤자 껍데기만 한국소유이고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장비, 정보, 장착 미사일은 미국의 도움과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데... 설마 국방부도 사용설명서가 영문이라 오역을 한 것일까?

"나라 경제 말아먹을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미친소 얘기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118주년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 단체, 청년 학생들이 모인 이날, 우리 평통사 식구들은 평화협정 실현운동 길잡이와 추진위원을 찾아 구석구석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광우병 미국 쇠고기 도입때문에 국민들도 미치겠다 @.@"

5월 13일에 있었던 104차 반미연대 집회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미친소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값싸고 질 좋다는 미국 쇠고기 - 알고보면 미친소요, 경제 살린다는 한미 FTA - 알고보면 민생파탄!

이런이런... 2MB의 거짓말이 이미 다 들통나버렸군.

회비와 후원금

중앙

[대표/임원]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강정구 고영대 변연식 임종철 문홍주 김성운(2개월) 박용일 이일영 장경옥 정순영 홍창의

[후원회비] 박춘원 서경숙 우경태(2개월) 유영섭 이광수 이성호 이은혜 임동명 최문숙(2개월) 최재영 한희숙 홍민애

[특별회비] 강정구 고영대 문홍주 이일영 임종철 전영남

[후원금] 우주의 군사화 반대 글로벌 네트워크 새길교회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고경심 송계채 해피빈

서울 평통사

[회원회비] 강유겸 강찬희 공동길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석제 김성운 김순정 김슬기 김연옥 김영진(2개월) 김은미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종한 김지수 김진환(2개월) 김치섭 김현미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남미영 문성현 박규상(2개월) 박석분 박선자(2개월) 박정자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정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서영석(3개월)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위선남 유영재 유현규 이경목(2개월) 이병일 이성열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종남 이준호 이현규 이현숙 이해영 이해진, 박승렬 이호민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남희 장성식 장속도 장윤지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희 조요환 조창현 주재영 지안나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황규금 황도연 황윤미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고은숙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기환(2개월)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용순 김유중 김점희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안지성 양계탁 양창호 장영숙, 김윤정 여혜숙 오혜경 윤민재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병용 이상근 이상희(2개월)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연자(3개월) 이영옥 이윤 이은영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기열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조명환(2개월)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중현(2개월) 허경자(2개월) 홍길표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용애 강혜선 곽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미영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성희 김인영 김숙희1 김숙희2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숙 노은하 노철성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진 박숙경 박옥선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배영

미 백창석 서경숙 서명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손석환 손장현 손종옥 신장
호 신정길 양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윤재윤 이경숙 이보영 이리나 이상
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준훈 이현주 임숙영 임채경 임현순 전윤
미 장동환 장미숙 조지선 지은희 지태봉 장인옥 장해영 정경화 정상희 정용진 정창욱 정현
수 조미옥 조민우 주명숙 주정숙 차복례 최경순 최은주 최희준 황영신 황영희 허진우 허호
인 현낙철 현지환 홍갑표 홍제숙 홍진표 홍혜숙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영준 권태형 김강연 김경민 김경희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선미 김영익 김의숙 김일회 김정녀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호영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신 서재훈 서화조 송영주 신동훈 신창균 신필녀 신현범 심상봉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현곤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전혁구 정유성 정재훈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미현 한연숙 홍 중

[후원회비] 김금옥 김대인 김도식 김동운 김명숙 김명중 김미영 김상기 김정대 김지영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문병호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백은정 서덕용 소병욱 송경평 송한석 신정순 심이섭
안용원 오석근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한성 유한진 이덕규 이미경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임경희 임용렬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영정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 웅 최원식 하태준 허문예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기덕 김민수 김시훈 김승만 김택균 민영환
문종식 박종양 변혜숙 신종원 이근량 이수용 이승윤 오영미 이우곤 이유빈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이현주 장창원 한은숙 홍성조 황재순 (주)도프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권선필 권선헌 권 인 권혁선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복실 김성자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지수 김홍업 김홍수 류재중 문양로
박도신 박영철 서영완 소종영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윤상렬 윤영덕 이경아 이기홍
이요한 이용구 이종명 이진규 이창복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도정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성삼 정순희 정창원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한동화 한재훈 허민정

전북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대송 김동학 김명근 김미경 김미라 김순희 김아영 김유순
라귀인 박영천 박은경 서정대 신용우 양정순 양종진 양재석 양지연 오기주 유은선 이경진
이규태 이금림 이명자 이병기 이병주 이병식 이세우 이수정 이용숙 이종구 이진규 이창근
임재완 장수나 장완수 전용균 전호일 전호정 정운승 정용용 정은주 정창완 조광수 조수미
최성웅 최성훈 최인자 최희숙 황인철 허정길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연태 김인수 김준근
김진호 김판태 김효성 남현욱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종대 박종문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이상호 이성원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병휴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목 최웅진 최재석 홍경갑 황남인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흥문 김경태 김광훈 김명훈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수미
김승환 김영식 김영식 김영일 김용성 김 현 노준복 모영현 박석면 박석중 박석환 박선재
박승규 박승옥 박영배 박종찬 배영일 배종렬 서창호 안희만 양덕준 유진이 윤종순 이광철
이대준 이돈기 손용석 김순중 이보영 이윤옥 이인수 이재원 이재창 이철우 이태석 이현수
이희수 장관철 전영남 정길주 정동석 정종득 정중석 정희억 주근호 채일손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한강희 홍용식 무등교회 큰사랑교회 무진교회 민들레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강성중 권정애 권주원 김금희 김상범 김영애
김옥희 김인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섭 김판갑 김창환 김현택 김현숙 박용제 박종규
박화무 배오직 배용한 유춘우 윤지홍 윤한근 우성섭 이규중 이천우 이형창 장호철 정복순
정철환 조선아 최난희 최윤희 최형석 피재현 한철희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CMS회원만)

고경수 김남경 박기백 박문수 박성민 박순중 이영훈 전창훈 정승영 허정호

부산경남 지역회원

김건우 류종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배종렬 신정길 임승계 조헌정 홍근수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미령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성경혜 이선엽 이
범준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독자퀴즈

직니연화료미울민담힘운월육귀하오아규효안이정신마명소치의정필보영비심머습회사어순자학
이과자대박미선

* 문제의 정답을 위의 칸에서 지워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답을 다 지웠을 때, 남은
글자가 정답입니다.

1. 촛불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친 소를 수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죠.
촛불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했던 두 여중생의 한을 풀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 두 여중생의 이름은? 000과 000
2.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이름은? 여성입니다. 000
3. ‘정규직’이라는 글자 앞에 한글자가 더 붙으면, 민중들의 시름은 두배 세배 깊어집니다.
0000 철폐 투쟁
4. 0000 000,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봉대감고 누워야지. 독감 주사 5만원 시대가 올 수
도... 이것을 주제로 만든 마이클 무어 감독 <식코>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5. 불쌍한 우리 아이들, 아침밥도 못 먹고 0000 0교시를 위해 학교로 가야 합니다.
6. 역대 대통령 취임 2개월 지지율을 중에서 최저 지지율을 갱신 한 대통령 이름은? 2MB
라고도 하죠.
7. 한반도를 가로 지르는 휴전선도 비극인데, 한반도를 세 토막 내는 한반도 000. 반드시
막아 냅시다.
8. 최근 주한미군은 000 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다고 합니다. 전략적 유연
성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영어로
는 Apache.
9. 이번호 <사람>은 광주 안성례 선생님의 얘기를 담았습니다. 이 분이 운영하는 곳이
<00000집>입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0. 얼마 전 죽도에서는 갑작스런 물높이 현상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생기더니, 중국에서
는 지진으로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000에서는 태풍으로 1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부독재정권은 국제 구호품마저 정권유지를 위해 막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11. 올바른 것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OOOO,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남아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편집후기

? 촛불에 깜짝 놀란 사람은 비단 청와대에 들어앉은 이만은 아니지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부글부글 끓던 분노는 한순간에 거리로 넘쳐 흘러나와 진보진영과 기성세대, 나아가 온 국민을 놀라웠습니다.

촛불 문화제가 한달가까이 진행되면서 ‘촛불을 든다는 것’은 이미 소수의 운동방식이 아니라, 양식있는 모든 이들의 행동방식이 되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긴장감 있는 현실의 정치에서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침묵과 냉소는 곧, 스스로를 정치에서 소외시키는 것이었죠. 정치와 생활을 분리시킨 결과였습니다. 미친소 파동으로 생활의 문제는 곧 정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없는’ 오만한 대통령과 과반의 여당에 대해 탄핵과 국회해산의 구호가 터져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단, 그 역동적인 촛불의 현장은 못 담았지만, 유영재 정책실장의 ‘광우병 쇠고기, 한미 FTA, 침략적 한미동맹’을 실었습니다. 감성적 분노를 넘어 이성적 인식으로 미친소 파동의 본질을 짚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지난호 (74호, 2008년 4월호)에 대해서 안동 평통사의 김헌택 선생님과 서울 평통사 나영훈 회원님 등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김헌택 선생님은 안동의 훌륭한 회원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마 76호에는 안동 회원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76호는 6·7월호 합본호로 7월 중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읽은 소감을 보내주세요. ^^